문화여성

문화매일

제 1149호 2021 년 12월 27일 월요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김건희 씨 기자회견,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사과 없고 대국민 감성과 동정에 호소했을 뿐

-허위이력, 김 씨 등장으로 범죄 혐의 논란 더욱 커질 수도

-기자회견, 소회적 감성 발표 윤 후보 대선 흐름에 긍정 영향 없을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허위이력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없이 소회성 발표로 대국민 감성에 호소했다는 것이 대선의 지지도 흐름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를 거론하며 "늘 똑같은 옷을 입어도 따뜻한 사람"이었다며 "남편 윤석열 앞에 제 허물이 너무 부끄럽다."고 강조 하였다.

또 아이에 대한 윤 후보의 기대를 말하기도 하였는데 "남편의 소망을 들어주지 못했다."며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그러지 말았어야"했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자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불찰"이라 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고 하였다. 그러면서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 눈 높이에서 조심하고 조심 하겠다" 며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할 것"이니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시라"라며 "다시 한 번 사죄하며 죄송하다."고 반복 하였다.

김씨는 대략 7분 간의 준비된 사과문을 읽고 마스크를 쓰고 회견장을 빠져 나갔다. 김건희 씨를 대신하여 국민의힘 관계자의 기자 질문의 시간이 주어졌으나 대선전에 김씨의 등판 여부를 물었을 뿐 별다른 기자회견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허위이력에 대한 구체적 사과없이 감성과 국민 동정에 호소했을 뿐, 맹탕 사과라는 대국민 사과의 진실성이 의문을 부를수 있는 대목으로 남게 되었다.

[김건희 대국민사과 입장문 전문]

날도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약 1년전만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후보 아내라고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듯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 때문에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없어져서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저의 탓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예쁜 아이를 얻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는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부디 용서해주십시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십시요.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헌종/기자

울릉 폭설, 응급환자 뱃길 버스길 끊기고 산간마을 고립

러시아 상공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하면서 전국이 강추위에 얼어붙고 있다. 이와 맞물려 눈구름이 서해 호남지역과 동해 영동지역, 울릉도 독도에 대설을 뿌리고 있다. 27일까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울릉도는(24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2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폭설에 따른 비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해안가 저지대 주택가와 산간지역의 폭설은 교통을 마비시켰고 인근 바다와 먼바다의 풍랑은 일주일가량 뱃길을 묶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 환자의 육지 이송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도 독도에 폭설이 내리는 동안에도 응급을 요하는 심근경색 환자와 뇌졸증 환자가 발생하였고 외상을 입은 응급 환자까지 발생하여 해군 함정으로 급박한 이송을 하였다.

그러나 섬 전체는 눈에 덮혀 설국의 장관을 연출하고 있으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편승한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물이 얼고 발길이 끊기는 삶의 고통과, 눈의 아름다움이 교차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교차하지만, 섬을 점령한 환상적인 폭설은 화이트 멜로처럼 주민 생활의 응어리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다.

정헌종/기자

충청남도, 국비 1086억 확보…숲으로 그린 행복 충남 구현

충남도가 차별화된 산림시책 추진을 위한 국비로 1,086억 원을 확보하면서 경제림 육성,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한 충남형 산림 탄소중립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중장기 산림정책 계획에 따른 내년도 중앙부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974억 원 대비 112억 원 증가한 1086억 원을 확보하면서 국비와 도비 등을 합쳐 총 1621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하였다.

도는 현재 산림이 핵심 탄소흡수원으로 부각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산림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5대 추진방향, 10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국비 확보에 따른 내년 중장기 산림정책 실천 사업은 △도시숲 등 녹지공간 확충(448억 원)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440억 원) △정책숲가꾸기(190억 원) △밀원수 등 경제림 조성(258억 원) △산림소득 증대(172억 원) △산림복지(113억 원) 등이다.

우선, 전국 지자체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된 서산·당진·홍성·예산 등 4개 시군 320㎞에 달하는 내포문화숲길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의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밀원수 조림은 밀원 감소와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양봉산업 육성 사업으로, 2018년부터 내년까지 조성하는 밀원수림 2579ha는 양봉산업 발전과 목재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여건 변화로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녹색공간, 휴양공간의 조성과 더불어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령-태안 해저터널 개통으로 새로운 관광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산도 자연휴양림 완공에도 속도를 낸다. 이 뿐만 아니라 휴양림·수목원·정원 연계로,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해 산림복합 휴양단지의 메카를 조성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맑은 공기를 확산하는 미세먼지 저감숲을 확충하며,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해 맞춤형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내년에는 서해안권역을 중심으로 한 경관·생태·체험관광 기반 조성과 경제림 육성, 산림소득 증대 등 임업의 가치를 한단계 높인다는 전략"이라며 "내년 중장기 산림정책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도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산림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밀원수 우수 조림지' 최우수기관, '산림보호' 분야 우수기관, '정부합동평가' 산림분야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2개 분야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최정근/기자

경기도의회 장현국의장, 2022년 신년사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힘찬 한걸음

경기도의회 장현국의장이 2022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장현국의장이 발표한 2022년 신년사 전문이다.

[2022년 신년사 전문]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힘찬 한걸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대망(大望)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경기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질서와 배려, 인내와 양보는 우리 대한민국을 전진하게 한 힘이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우리는 내일을 위한 희망 만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위기극복과 더불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집행부와의 신속한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도민과의 활발한 소통에 무엇보다 집중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등 철저한 방역을 기본 방침으로 하면서 민생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정에 전념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분권 2.0의 시대를 위한 준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지방의회의 가장 선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낸 것에 멈추지 않고 인사 독립 운영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차지분권 2.0 시대의 전기를 열기 위한 준비에도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2022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거대한 시대의 전환을 이루는 해로 그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해이고, 코로나 시대의 슬기로운 극복과 안전한 일상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무엇보다 자치분권 2.0이라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올해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가지는 의미 역시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를 더 희망찬 미래를 여는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자치분권 2.0의 시대를 시작하며 이제껏 준비한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다듬어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이 중심이 되는 시대, 지방이 이끄는 국가 발전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2년 호랑이의 힘찬 포효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가치로 자치분권의 더 큰 가능성을 키우는 경기도, 1,390만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임인년(壬寅年) 희망찬 새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 경기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임인년 새해, 경기도의회 의장 장 현 국

조혜영/기자

충청남도의회 김연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6년 연속 수상 영예'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4년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 김 의원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공약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시상하는 상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가장 선호하며 수상을 희망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11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남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 단장과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충남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충남학술용역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심사에서 김 의원은 충남도 공약인 ▲충남사회서비스원 설립 ▲도립미술관 건립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치료지원 ▲충남 노인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경력단절 및 중장년 여성일자리 발굴 등을 지키기 위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모임을 운영하며 정책을 제안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구 공약인 ▲백석동 구름다리 설치 ▲보행자를 위한 인도 확장 ▲봉서산 생태공원 조성 ▲장재천 재해지구 개선 ▲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앞장서 온 결과 공약 이행률 94% 이상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공약은 지역주민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주민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공약 이행에 힘썼는데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용인시의회 지방의원 매니패스토 대상 시상식 개최

용인시의회는 23일 오후 2시 용인지역자활센터에서 용인 YMCA가 주최한 '2021년 제8대 용인시의회 지방의원 매니패스토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기준 의장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대상은 윤재영 의원이 수상했다. 또한, 최우수상은 김상수 부의장, 황재욱 의원, 우수상은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유향금 경제환경위원장, 유진선 의원이 수상했으며, 비례대표 특별상은 전자영 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한 의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공약 이행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우수 의원을 선정하고 있는 용인 YMCA는 이번 매니패스토 대상과 관련해 "공약실천은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인만큼 공약 이행도, 공약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심사 기준을 설명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식품 조리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선행되고 공감대 형성 이루어져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이 좌장을 맡은 '식품 조리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대책 마련'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사)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폐암 유발 등 인체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더해 조리 미세먼지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등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동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정책이 있으나 현재 실행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실내외 미세먼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어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화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조리종사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급식실 조리 환경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후드 점검 및 교체, 조리사 인력부족, 과도한 조리 빈도수 개선 등 산재 발생 이전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재훈 전)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자리가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며 각 미세먼지 문제점들의 공론화를 통해 종합적 논의구조를 만들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의 기반을 다질 것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대근 경기도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실내 공기질 개선과 실내에서 밖으로 방출되는 미세먼지 처리 문제를 제시하며 여러 분야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천희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급식관리담당 사무관은 급식실 환경 개선에 관한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해 환경 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황대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급식실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드 설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 유지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조리원 건강진단에 대한 예산 반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안혜영 위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함께 문제점을 인식함으로써 추후 다른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굴레의 의무를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선행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동참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조혜영/기자

대구시의회, 대구시민은 젊은 대구 원한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통하는 SNS'가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한 '수요자 조사를 통한 대구시 신규정책과제 발굴'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연구결과로 도출된 대구시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연구 결과 대구시민들은 산업구조 개편, 스마트관광 시범도시 조성, 영유아 교육 지원이 대구시가 향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손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하는 SNS'는 소속 강민구 의원의 주도하에 김규학, 김성태, 김태원, 이시복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교육, 관광, 경제 3가지 분야에 대해 '수요자 조사를 통한 대구시 신규정책과제 발굴' 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용역 결과 대구시민이 생각하는 대구시가 향후 역점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경제분야에서는 '한국형실리콘 밸리 단지 조성', '대구형 빅데이터 저장 클라우드 센터 구축', 'AI, 빅데이터 기업 창업 지원 및 유치'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관광분야에서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 조성', '관광특구 지정', '관광, 숙박 공공앱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지원' 순서로 많은 응답자가 나왔고, 교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교육 추진'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번 연구는 구·군별로 선정된 479명의 시민과 각 분야의 교수 등 60명의 전문가 집단을 선정해 온라인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나온 결과이다.연구를 주도한 강민구 의원은 "이번 연구는 관광과 경제, 교육이라는 3가지 분야에 국한되어 시행된 아쉬움이 있지만, 조사 결과 대구시민은 대구의 관광매력도가 낮다는 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공교육의 질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구가 첨단사회에 걸맞은 산업체질 개선을 통해 젊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라면서, "대구시민이 대구의 현실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를 감안해 앞으로 대구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기보다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의 생각을 고려해 시책의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강민구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구시에 지역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제정 등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종채/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류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대표전화 : 1899-965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도봉구 도봉봉TV, 구민이 부르는 '어젯밤이야기' 영상 공개!

도봉구가 연말을 맞아 대표 유튜브 '도봉봉TV'에서 '어젯밤이야기 도봉구민 ver.'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도봉구 지역의 초.중학생, 일반구민, 싱어송라이터 주노가, 푸른달 등이 출연해 가수 소방차의 인기곡 '어젯밤이야기'를 직접 노래하고 자유로운 몸짓과 즉흥댄스를 선보인다.

구는 이번 영상을 통해 답답한 코로나19의 스트레스를 웃음으로 날려버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영상 말미에는 출연 구민들의 새해 소망과 가슴 뭉클한 응원의 말들이 이어진다.

한편 '도봉봉TV' 도봉구 대표 유튜브 채널로서 코로나19 기간 구민들을 위한 도봉주간뉴스, 각종 구정 현장 영상과 도봉영상크리에이터 등 기획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영상 중간 인사말에서 "모두가 일상회복을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됐다.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은다면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이겨내지 못할 게 없다.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라는 노랫말처럼 끝내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을 위해 힘내시길 바랍니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최광수/기자

강동구, 언택트 속 문화예술 감상 야외조각전 열려

강동구는 강동구청 열린뜰과 일자산 근린공원 내 잔디광장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힐링 할 수 있는 '2021 치휴(休)의 야외 조각전'이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차를 맞는 야외조각전은 다목적 문화공간인 강동구청 열린 뜰과 자연친화적인 일자산 잔디광장에 조각 작품을 전시하여 수준 높은 고품격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준비했다.

이번 전시회는 '2021 치휴(休)의 야외 조각전' 주제로 열리며, 국내 조각가 16명의 작품이 열린뜰에 12점, 일자산 잔디광장에 7점을 전시한다.

열린뜰에는 인간의 진취성을 담은 작품들로 구성하여 코로나 이후 나아갈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작품들로 2022년 1월 22일까지 전시되며, 일자산 잔디광장에는 2022년 1월 5일까지 자연, 동물, 휴식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다목적 문화공간인 열린뜰과 자연친화적인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감상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구는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예술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구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기자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 구민과 함께 하다 · · · 토론회, 환경거버넌스 성과 공유회 가져

영등포구는 지난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민 토론회와 녹색영등포 환경거버넌스 성과 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등포, 기후위기 대응 구민과 함께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구민과 행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 탄소제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본 토론회에 앞서, 구는 지역 주민과 학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민 토론자를 모집하고 12월 8일~9일 양일에 걸쳐 사전 온라인 워크숍을 가졌다. ▲사용과 버림: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순환 방안 ▲교통과 이동: 전기차, 수소차 활성화 방안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방식 전환 방안 등을 주제로 의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도출하며 다양한 시각에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13일 열린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소통 방식으로 개최됐다.

정권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의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주민토론 결과 발표, 청중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사전 워크숍에서 제안된 사업과 교육, 캠페인 등 실천방안들에 대해 기탄없이 이야기 나누었다.

이후 '녹색영등포 환경거버넌스'의 성과 공유회가 이어졌다. '녹색영등포 환경거버넌스'는 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적 네트워크로, 생활 속 환경문제 해결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성과 공유회에서는 환경거버넌스의 3개 실무분과에서 올 한해 동안 추진해온 6개의 실천사업들을 제작 영상과 위원 발표를 통해 공유했다.

특히, 올해 실천사업 중 하나인 '악취원인조사 기동반 운영'은 돋보이는 성과로 참여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악취원인조사 기동반'은 악취민원 다발구역에 대한 집중 조사를 기반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큰 기여를 했다.

그 결과 구는 2021년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구 선정 쾌거를 달성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환경거버넌스 위원, 구민 등 온·오프라인 참여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보며, 향후 거버넌스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 환경을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다졌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기후위기 대응 구민 토론회와 성과 공유회를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에 적극 동참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 누리실 수 있도록 쾌적한 녹색도시 영등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마포구,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및 방역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마포구가 취업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이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에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구직등록필증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0개 분야에서 총 19명 선발

대상 사업은 ▲폐자원 활용 화단 조성사업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사업 ▲아동돌봄브릿지 카페사업 ▲삼개나루 좋은이웃 공유센터 ▲연남동 걷고싶은 마을 조성사업 ▲합정동 특화거리 조성사업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전문가 양성사업 ▲성산1동 아름다운 골목 조성사업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도우미 ▲마을바리스타 양성사업이다.

근무 기간은 내년 2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이며, 근로 시간은 주 30시간(만 65세 미만 기준)으로, 급여 조건은 시급 9160 원과 주차·연차 수당, 간식비로 1일 5000 원을 받게 되며,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참여 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마포구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5개 분야에서 총 25명 선발

대상 사업은 ▲선별검사소 검체업무 지원 ▲관광지 방역 관리 ▲도서관 출입자 발열체크 및 명부관리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제작 및 배부 ▲주민센터 출입자 발열체크 및 명부관리로, 코로나19 관련한 생활 방역 업무를 맡게 된다.

근무 기간은 내년 2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이며, 근로 시간은 주20시간(만 65세 미만)으로 급여 조건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같다.

지역공동체와 방역일자리 사업 모두 ▲접수일 기준 연속해 2년 초과 동일유형 일자리사업 반복 참여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1세대 2인 참여자는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가 확산세인 만큼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근로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인 만큼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 "푸른빛의 예술, 백자에 수놓이다!"

한성백제박물관은 2014년부터 소장품목록의 발간을 통하여 박물관의 대표적인 소장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11번째 소장품목록은, 이상윤 교수가 기증한 중국 청화백자 가운데 대표적인 유물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박물관의 다양한 소장품을 전시 및 교육에 활용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한.중 도자 교류사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목록은 중국 청화백자 380점을 선별하여 기능, 형태, 문양 별로 분류한 후, 도자기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각도의 사진 이미지와 필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화백자의 의미와 발전 과정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청화백자는 붓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문양을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자의 하얀 바탕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푸른색의 코발트 그림은 보는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붓은 다른 그림도구와 비교하여 문양을 표현하는데 무척 자유롭다. 이는 이상윤 기증 청화백자에 보이는 길상문, 문자문, 동물문, 식물문, 인물고사도(人物古事圖) 등 매우 다양한 문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윤 기증 청화백자는 주로 중국의 명(明).청(淸)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접시, 대접, 항아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릇에 그려진 문양의 배치.구성이 변화무쌍하며 인간의 장수를 기원하는 '수(壽)'자 문양도 눈에 띤다. 의자, 베개, 수저 등 특수한 형태의 청화백자를 통해, 당시 도자기의 제작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에서는 본 목록을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서울도서관 및 한성백제박물관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책방(서울시청 지하1층) 또는 한성백제박물관 '뮤지엄샵'(올림픽공원 안)에서 도서를 판매할 예정이다.(판매가격 10,000원)

최광수/기자

강남구, CNN 광고 통해 글로벌홍보 나선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홍보영상을 미국의 보도채널 CNN에 방영한다.

구는 60초 분량으로 제작된 홍보영상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CNN International(CNNI) 채널을 통해 미국, 캐나다 등 미주에 40회씩, 일본, 중국, 호주, 필리핀 등 아시아 27개국에 42회씩 총 82회 방송한다.

홍보영상은 '필(必)환경도시' '미래형 매력 도시' '포용복지 도시' '공감행정 도시' 등 강남의 핵심가치들을 담았으며, 코엑스와 봉은사, 양재천 등 관광 명소들을 해외 시청자들에게 다채롭게 소개한다.

이기호 정책홍보실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영동대로 K-POP콘서트', 'IEF 2020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in 강남', '의료관광 페스타' 등의 국제행사와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비롯한 대형개발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외홍보를 통해 '역시 강남은 다르다'는 인식을 세계인에게 심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0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영상콘텐츠 전시회 '2021 밉컴(MIPCOM)'에서 동아시아 유일의 홍보관을 개설해 BBC와 미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지 '버라이어티' 등 세계 유수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현재 온라인 '싱가포르 ATF'에 참가하고 있으며, 40여개국 50개사와 '강남인사이더스픽스' 등 자체제작 콘텐츠 제공을 협의하고 있다.

황규석/기자

서초구, 서초음악꿈나무 악기 교육 아카데미 성황리 마쳐

서울 서초구와 서초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서초음악꿈나무 악기지원사업'의 '악기 교육 아카데미 수료식'을 지난 11일 성황리에 마쳤다. 이 사업은 악기를 처음 접하는 청소년에게 기증받은 악기를 나눠주고 음악 교육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총 16명의 음악꿈나무 수료생을 배출했다.

'서초음악꿈나무 악기지원사업'은 미래의 클래식 주역인 청소년들의 음악재능을 키워주고 악기 배움의 문턱을 낮추고자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악기 나눔을 받은 청소년 45명 중 악기를 배운 적이 없는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악기 연주의 이론과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악기교육 아카데미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서초음악꿈나무 악기교육 아카데미'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심산기념문화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은 기초/초급반으로 나누어 수강생 수준에 맞는 현악 앙상블 커리큘럼으로 총 11차시로 구성하였으며 서초문화재단 상주예술단체 '서초교향악단' 연주자들이 직접 청소년들을 교육했다.

특히 악기의 종류 및 파트별 역할, 악보 보는 법 등 이론수업과 더불어 고향의 봄, 아리랑 등 대중적이고 친숙한 연주곡들의 연주법을 배워보는 실기수업으로 구성하여 클래식(연주) 자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번 악기 교육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결과 수강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이번 기회를 통해 내 악기를 얻게 되었다"며 "처음에는 악기를 잡는 자세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아는 곡을 직접 연주 할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는 내년에도 악기나눔 및 교육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악기교육 아카데미를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성과발표회(꿈나무 음악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무대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재탄생한 폐기악기를 활용한 기획전시를 서초구 도서관 순회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미정 서초구 문화관광과장은 "앞으로도 악기 나눔을 통한 악기교육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구로구, 2022년도 예산 13.16% 늘려 8364억원으로

구로구 2022년도 본예산이 구의회 의결을 거쳐 8364억2천만원으로 확정됐다. 구로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진행된 제305회 정례회를 통해 구의회가 예산 규모를 올해 대비 13.16% 늘려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며 "이는 올해 본예산이었던 7391억6천만원보다 972억6천만원 늘어난 금액이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도 구로구 예산은 일반공공행정(461억), 공공질서 및 안전(59억), 교육(214억), 문화 및 관광(290억), 환경(420억), 사회복지(4625억), 보건(277억), 농림해양수산(16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1억), 교통 및 물류(253억), 국토 및 지역개발(208억), 예비비(70억), 기타(1408억) 등 총 13개 분야에 쓰인다.

구는 주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 장애인, 수급자,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교육·문화 분야는 문화예술 공간 마련 및 도서관 시설 확충,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와 지역사회 방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다. 특별회계 예산은 139억2000만원으로 의료급여, 주차장 건설 등을 위한 사업에 투입된다.

이성 구청장은 "이번에 확정된 예산으로 주민들이 일상의 삶을 되찾는 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경기도, 행안부 '2021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부문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 활성화 평가는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제안을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우수기관 선정은 제안 채택률과 실시율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제안 활성화 노력도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한 심사과정을 통해 이뤄졌다.

도의 정량평가 결과, 채택률은 24.2%, 실시율은 38.2%로 전년(15.6%, 22.9%) 대비 각각 8.6%p, 15.3%p 상승했다. 제안제도 운영 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제 정책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비춰 볼 때, 실시율이 크게 향상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정성평가에서는 도민과 공무원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통합창구 운영, 다양한 공모진행, 제안숙성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제안 활성화에 노력한 점이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도는 '경기도의 소리(Voice of Gyeonggi-do)'라는 도민참여 통합창구를 운영해 제안, 청원, 발안, 주민참여예산, 민원 등 도민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안내함으로써 도민 접근성을 높여왔다. 또 올해 총 3회의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고 '준등기우편 이용 장려를 통한 행정우편 예산절감 효율화' 등 17건의 제안을 채택했다. 심사과정에 온라인 사전투표와 현장평가를 포함함으로써 도민 참여도를 높였다.

이 외에도 도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 재검토하는 '제안숙성단'도 운영했다. 올해 총 12건의 불채택 제안을 숙성해 '경기버스 정보-앱을 통한 공공화장실 정보 제공' 등 5건을 채택했다.

윤영미 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경기도가 그동안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편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조혜영/기자

성남산업진흥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중소기업 공모과제 유치 성과 지원

성남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정부 및 광역/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모 과제 지원사업 유치를 위해 "외부자원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지원한 결과 2021년 지원기업 중 총 4개사가 선정되어, 약 2억 4천여만원의 국비 유치 성과를 올렸다.

성남산업진흥원에서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자발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공모과제를 발굴하고 도전하는 중소기업에게 과제 유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매칭 컨설팅을 매년 지원해 왔다.

외부자원 유치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모과제 유치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 전문가 등을 기업과 매칭을 통해 과제전략수립,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분석 등의 기업이 과제 준비 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컨설팅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성남산업진흥원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5천여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20여개사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었다.

성남산업진흥원 류해필 원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과제 유치 성과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재도약을 이끌 기회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공모과제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성남시만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관내기업이 선정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전했다.

이성율/기자

화성시 동탄청소년문화의집, '2021 화성시청소년자기주도여행' 성황리 마무리

동탄청소년문화의집(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운영)은 지난 6월부터 진행한 2021 화성시청소년자기주도여행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자기주도여행' 체험활동으로써 청소년의 도전정신과 협업능력을 배양하고 자기주도 문화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3명씩 구성된 청소년 12개팀은 송산공룡알화석지, 경복궁, 남산서울타워,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속촌, 만화카페 등 당일치기 여행으로 다양한 여행지를 경험했으며, 특별한 추억이 형성되는 여행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탄목동중(1학년) 김규빈 학생은"내가 계획한대로 실행하게 되어 성취감을 느꼈다. 뜻깊은 경험이었으며, 다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임해보고 싶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동탄청소년문화의집은 2022년에도 자발적 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여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인스타그램,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양시현/기자

수원시 스포츠, 문화시설 이용하면, 치킨 10%할인 실화냐 !!

수원시 팔달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가족이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관람, 수원화성, 화성행궁, 박물관, 미술관, SK아트리움, 해우재 등을 관람 후에 수원통닭거리를 이용시에 10%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행사를 2022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이번행사는 가족 친지 등 지인들과 함께 야구, 축구, 배구 등 프로경기를 관람하거나 수원화성, 화성행궁 등 수원의 유서 깊은 관광지,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한 뒤에 연계하여 수원전통의 통닭거리를 이용 할 경우에 통닭구매 금액의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팔달구는 그 동안 유래 없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관내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수원통닭거리상인회와 협의 하에 이번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시민들이 수원의 유명 관광지와 스포츠, 예술 등 문화생활을 영위한 뒤에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통닭거리에서 치맥을 즐기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여파에 따른 관내 골목상권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연말을 맞이하여 문화생활도 누리고 소상공인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 토론회...공무원과 시민 소통·협력

광명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23일 광명시민회관 리허설룸에서 '민관협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광명시 시정협치협의회, 협치실행위원회, 시민참여커뮤니티, 공론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과 업무 추진에 있어 특히 시민과의 협력이 중요한 부서인 정책기획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사회적경제과 공무원 등 37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사)거버넌스센터교육원 송창석 원장이 광명시 협치의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어 2부 토론 시간에는 주민과 행정의 입장에서 서로의 협치 경험을 공유하고 협치의 필요성, 협치가 일상화되기 위한 서로의 역할 나누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협치를 통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광명시의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박승원 시장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협치는 이제는 행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행정과 민간이 협치의 관점에서 볼때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이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은 행정으로 들어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시정협치협의회, 협치실행위원회, 시민참여커뮤니티, 공론화위원회 등 민관협치기구를 운영해 시민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민관협치의제발굴토론회, 시민청책토론회, 시민공론장 운영을 통해 숙의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했다.

광명시는 내년에도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협치체계 구축과 협치문화 조성에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용민/기자

인천 강화군,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총력 대응

강화군이 겨울철 한파, 대설 등에 대비해 분야별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군은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강한 바람으로 매우 추울 것으로 전망하고 기습 한파, 폭설에 대비해 안전관리와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먼저, 군은 재난 발생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상황 발생 시에는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별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즉각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폭설에 대비해 재난상황실 CCTV을 활용해 주요 시설과 도로 등의 예찰을 강화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선별검사소 주변을 우선적으로 제설에 나설 계획이다. 한파에 대비해 상수도 동파 긴급복구반을 운영하고, 식수 부족 시 미추홀참물 등의 생수공급과 생활용수는 살수차를 동원해 공급예정이다.

또한, 소관부서 및 읍·면에서는 취약구간 제설장비 보관 상태, 자재 배치 등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고, 재난 취약계층인 독거어르신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한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마을별로 한파 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생활·돌봄 위기가구 발굴과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복지틈새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철저히 대비해 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수원시, 미래 이끌어갈 반짝이는 아이디어 찾았다!

수원도시재단이 주최하고 수원시 기업지원센터가 주관한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연 '우수 메이커 경연대회'에서 'ICT기반 사물인지 등 융합플랫폼', 'Wheelchair Mountable Robotic Arm(WMRA, 휠체어 마운테이블 로보틱 암)' 등 2개 아이디어가 대상을 받았다.

'우수 메이커 경연대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재인 메이커(스스로 생각하고 만드는 능력을 갖춘 자) 활동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대회다.

청년부 대상을 받은 '레디스(REDIS)'팀(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Wheelchair Mountable Robotic Arm(WMRA)'은 레디스(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휠체어에 음성 인식 AI(인공지능) 로봇 팔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다.

장애인·어르신들의 행동 보조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일반부 대상을 받은 'ICT기반'팀(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분야)의 'ICT기반 사물인지 등 융합플랫폼'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음주운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다.

차량 룸미러에 비접촉식 알코올 감지 센서를 부착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문구·사진 등 시각 효과로 경고해주는 방식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도시재단은 지난 9~19일 관내 고등학생·대학생(청년부), 예비창업자·메이커 활동가(일반부)를 대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친환경 장비 분야', 'ICT(정보통신기술)·AI(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참가자(팀)을 모집했다.

총 33개 출품작 중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참가자 개발 역량 등을 고려한 결과 1차 서류심사(21일)에서 8개 아이템(미래 모빌리티 4개,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4개)을 선정하고, 이날 본선 대회에서 순위를 결정했다.

청년부·일반부 1팀씩 대상 2팀(창업진흥원장상), 최우수상 2팀(수원도시재단 이사장상), 우수상 4팀(수원도시재단 이사장상) 등 8팀이 수상했다.

수원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고,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메이커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수원시, 시민과 함께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만들어간다

수원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를 열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유문종 제2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득현 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 정유리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정종훈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영철 수원 KYC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추진 경과·수립 방향 설명,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실현 ▲기후변화대응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연계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원도시기본계획'은 수원시의 공간구조,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장기발전 종합계획'이자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수원시는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재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해 도시 미래 모습을 그리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다.

내년 8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9~10월 주민공청회·주민공람 등으로 전문가·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관계행정기관 협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경기도종합계획 등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부문별(환경, 교통, 공원, 상·하수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한다. 또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도시 주요 지표·기반 시설, 도시관리 전략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역발전 불균형 ▲저출산·인구 고령화 ▲개발 가용지 부족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권별 공간을 구상하고, 적정한 인구계획을 설정한다.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도 수립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문종 제2부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하남시, 천현동 보행자우선도로 준공 '원도심 보행환경↑'

하남시는 원도심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천현동 꿈나무공원길 만들기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이 최근 준공됐다고 2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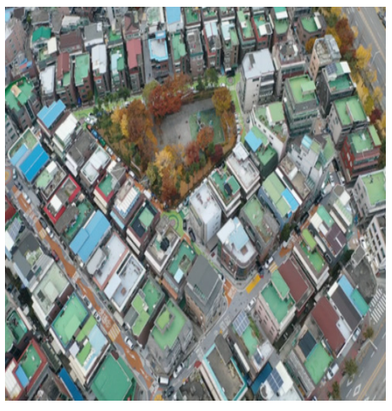
이 사업은 2019년 주민협의체 구성 후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6억원(국비3억원, 시비3억원) 예산이 투입된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천현동 꿈나무공원 주변(총 7,427㎡ 면적)은 평소 차와 보행자가 뒤섞여 이용돼 교통사고 위험 등 도로 여건이 열악했다. 이에 일방통행 실시, 디자인도막포장, 조명시설 교체, 어린이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한 하남시 최초 보행자우선도로이다.

사업 준공 후 모니터링 결과, 차량 속도가 최대 6.9% 감소했으며 주민 만족도는 27.7% 향상됐다, 또 어린이 통행 안전성이 21% 높아지고, 지역 대표 장소로의 상징성이 24.3% 향상돼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용석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준공에 이어 내년에는 천현동 꿈나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약 110면)도 착공할 예정"이라며 "원도심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원도심 주민들의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강호/기자



안성시, 동부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개최

안성시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해 사업계획들의 내실을 다지고 연계사업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3일 안성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행정협의회에는 김보라 시장을 비롯해 임병주 부시장, 농촌협약 관련 14개 부서의 실과장과 동부권 3개 지역 면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민간담회, 농식품부 사업계획 컨설팅, 경기도 통합컨설팅 등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동부생활권 활성화 계획들의 협의·조정이 이뤄졌으며, 부서별 연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과 안성시에서 현재 계획 중인 지역발전 사업과의 연계 및 통합 추진방안, 부서별 역할 분담과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하는 사업계획수립, 효율적인 추진방법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여러 부서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복합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공감과 소통이 수반되어야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취약했던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농촌에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안성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서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협약은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안성시 동부생활권의 경우 향후 5년간(2022년~2026년) 최대 430억원(국비 300억원, 지방비 1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중구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 기공식 개최

인천 중구는 원도심 주민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 욕구 실현을 위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 기공식을 24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전에 파악된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참석자를 한정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홍인성 구청장과 최찬용 중구의장, 배준영 국회의원, 율목동 자생단체장 및 주민 등이 참석해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 개방 주차장 등이 들어설 율목동 주민편익시설의 착공을 기념했다.

중구는 지난달 30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부국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율목동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설 부지(율목동 244-8)는 舊 B.B.S.인천시연맹이 사용하던 건물(1969년 준공)이 있던 자리이다. 지난 2009년 건물 안전진단 결과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 위험 등급으로 판정되었음에도 그동안 건물 관리권 및 B.B.S 이전 문제 등으로 10년 넘게 방치돼왔다.

이에 중구는 시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양여받아 지난 2018년, 방치된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운영해 왔다.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약사항으로 지정, 지난 2019년 주민편익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착공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율목동 주민편익시설이 건립되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평택시 세교동, 야간 조명 설치로 연말 분위기 물씬

평택시 세교동은 지난 23일 세교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야외 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이날 점등식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단체장 및 세교동 공무원 소수만 참석했다.

세교동행정복지센터 앞 작은 공원에 설치된 대형 느티나무 트리와 더불어 다양한 모형의 LED 조명은 지나가는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곳에는 휴식할 수 있는 벤치와 운동기구도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번 조명 설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잠시나마 다른 세상에 온 듯 행복감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참고로, 평택시 세교동은 인구 3만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내년 5월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입주를 시작으로 12월 힐스테이트 퍼스티움 입주 예정으로 대규모 인구유입과 발전이 기대된다.

한편, 차정우 세교동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연말연시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내년에는 주민들과 함께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세교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명은 내년 2월까지 세교동을 환히 밝힐 예정이다.

양시현/기자

평택시, 경기도 민관협력 우수시군 평가 우수기관 선정

평택시는 경기도 2021년 민관협력 우수시군 평가에서 민관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500만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평가는 경기도가 민관협력 강화 및 위기이웃 발굴지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처음 시행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등의 정량평가와 위기이웃 발굴·지원 우수사례인 정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평택시는 지난 10월 동두천에서 개최한 '2021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진위면 사랑의 이동트럭 사업으로 위기이웃 발굴지원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결과를 이뤄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평택시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민관협력을 통해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시현/기자

인천시 중구,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 착공식 개최

영종·청라국제도시 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 건설공사 착공식이 지난 22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씨사이드파크 야외무대에서 개최됐다.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이 지난 2018년 5월 24일 구청장 후보시절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 착공 범시민연대' 측과 '제3연륙교 조기개통 및 통행료 무료화 협약식'을 가진 후 3년 7개월 여만이다. 당시 협약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이날 착공식을 개최해 그 의미가 각별했다.

이날 착공식은 박남춘 인천시장, 홍인성 중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등 주요 인사와 주민대표가 참석해 제3연륙교 건설공사 착공을 축하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

제3연륙교는 20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기존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와는 달리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최초의 일반도로이다. 총연장 4.68㎞, 폭 30m, 왕복 6차로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6,500억 원이 투입된다.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영종국제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청라국제도시와 연결된 제1경인고속도로를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 발전의 한 획을 긋는 것"이라며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수도권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영종국제도시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 한자리 모여 소통의 시간 가져

광명시는 지난 2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광명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및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속에 진행됐으며 참여기업 네트워킹, '2022년 광명시 사회적경제과와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의 사업계획안내에 이어 유길의 안심마을 협동조합 이사장이 '대구시 안심마을협동조합 커뮤니티 케어'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히, 참여기업 네트워킹 시간에는 각 기업들이 기업 소개와 함께 한 해를 보낸 소감을 서로 나눴다.

한 참여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힘겹게 버텨온 사례, 또 창업을 하게 된 계기 등 기업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올 한 해 사회적경제 및 공정무역 활동가를 양성, 광명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청소년 사회적경제 및 공정무역 학교, 사회적경제과 신설,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사회적경제기업 G-Bus 광고, 사회적경제 및 공정무역 페스티벌, 제3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정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등 많은 일들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사회적경제를 통해 공공·공정·공감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서철모 화성시장, 대한민국 대표하는 미술관 건립 나서

24일, 동탄출장소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화성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관 건립에 나섰다.

시는 24일 동탄출장소에서 '화성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건립사업 추진 개요 및 일정, 수행 방법 등을 논의했다.

화성시립미술관은 동탄2신도시 공공7부지 총 8,122㎡ 면적 약 2,457평에 오는 2025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 ▲타당성 분석 ▲유사 사례 및 적용방안 도출 ▲기본 구상안 및 계획 수립 ▲미술관 건립 예정부지 연계방안 ▲전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미술관 운영 및 관리방안 ▲문체부 공립미술관 사전평가 평가항목 연구 등을 담았다.

또한 지역 예술인과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화성시만의 독특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일구고 예술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립미술관은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과 예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융·복합 전시와 문화행사를 선보일 것"이라며,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양평군,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2등급'달성!

양평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측정은 전국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주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및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평가됐다.

올해의 청렴도 2등급 달성 분석 결과, 외·내부 청렴도 설문조사 점수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감점 또한 없었다. 특히 외부청렴도는 부패경험 영역, 내부청렴도는 예산집행 영역에서 대폭 상승했다.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청렴도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감점요소가 없는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양평군의 이번 성과는 2016년부터 5년간 4등급이던 청렴도가 2단계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사실상 최고 등급을 받은 것과 같다. 또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양평군이 유일하며, 전국 592개 기관 중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33곳 뿐이다.

이같은 성과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한 꾸준한 노력 끝에 이뤄낸 뜻 깊은 결과다.

양평군은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군정 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해 왔다. 전 직원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청렴 문화운동(2019년)'전개를 시작으로, '청렴 하이파이브(2020년)', '청렴 콤비네이션(2021년)'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의 성과를 이뤘다.

'청렴 문화운동'은 6개 주요업무 슬로건과 10대 청렴실천 수칙을 정해 청렴이 공직 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직원 의식 전환·문화운동 캠페인이다. 지난해에는 청렴 하이파이브(H5: 정직, 경청, 조화, 희망, 행복) 문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찾아가는 부서 청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올해에도 '기본을 지킬 때 청렴한 양평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의 청렴 문화운동인 '청렴 콤비네이션'을 추진해 직원 스스로 부패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사전예방 청렴시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양평군은 ▲청렴 문화운동 ▲청렴 하이파이브 ▲청렴 콤비네이션 운동을 지속적으로 운영·발전시킬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양평군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한편 양평군은 2022년 '시대 흐름에 발맞춘 전 직원 준법·윤리 업무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청렴 생태계' 체계를 조성해 직원들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강화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부패방지권익위법(2008년), 청탁금지법(2016년)이 이미 시행·정착됐으며, 2022년 5월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격변하는 청렴 생태계 흐름 속에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업무체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양평군은 청렴 문화운동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앞으로 다가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해 전 직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방지를 위해 업무추진비, 여비, 사업비 각종 수당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청렴다양성 통합을 위한 소통 활성화 방안으로 세대 공감을 위한 신규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청렴 홍보품을 활용한 찾아가는 부서 청렴 실천 캠페인을 추진, 부정부패 감시센터 지속 운영으로 군정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조근수 감사담당관은 "이번 평가 2등급 달성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군청을 신뢰해 준 군민들을 비롯해 부패와 부정을 거부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친 공직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도 2등급 상승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공직자 모두가 행복하고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양평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율/기자

생활개선안성시연합회 온라인 연말총회 및 과제교육 실시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3일 생활개선안성시연합회 회원 61명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연말총회 및 과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총회에서는 2021년 과제교육과 지역봉사를 주요 활동으로 추진했던 결산보고와 2022년도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안성시 안심자치단체 방역대책에 따른 코동이(코로나 동선 안심이) 설치를 권장해 코로나 시대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일조토록 했다. 또한 과제교육으로 한지나라 보담갤러리 최지영 강사가 진행하는 한지공예품 만들기도 함께 실시했다.

이순우 생활개선안성시연합회장은 "코로나 상황에 현장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모두 어려움이 많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회원들 덕분에 무탈하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농업인 단체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조준희 농촌사회과장은 "서리, 우박 피해 등 농업분야의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생활개선회원들이 탄소중립이나 지역봉사활동등 사회활동에도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생활개선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생활개선안성시연합회는 여성농업인학습단체로 2021년도에도 탄소중립 선포식 및 불우이웃 돕기 나눔행사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최대호 안양시장,"공무원의 혁신적 사고가 시민행복 앞당기는 요인"

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과 부서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안양시는 24일 2021년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부터 혁신적 사고로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돕는 공무원을 시상하며, 규제혁신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각 부서를 대상으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규제의 발굴·개선 ▲규제혁신·적극행정 참여도 등을 따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날 시상에서 개인 부분은 총 9명, 대상의 영광은 이난영 규제개혁팀장에게 돌아갔다. 2021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규제혁신 성과 최고 인증대회인 행안부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 등의 성과를 냈다.

최우수 2명(건축과 이준영·동안보건과 최세훈), 우수 6명(도시재생과 허진하·교통정책과 윤정호·기업경제과 윤석환·스마트시티과 이재봉·건축과 정혜진, 만안보건과 황영주)도 과제의 발굴 및 개선 등 규제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부서는 총 7개과, 대상은 건축과에게로 돌아갔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고시 지역의 벽면간판 설치 규제의 개선을 이끌어 내며 행안부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도시재생과·기업경제과, 우수상은 도시계획과·동안보건과·교통정책과·동안 교통녹지과가 각각 차지했다. 규제혁신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안양시는 신산업·신기술 역점을 둔 애자일(Agile)한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지난 3년간 6개 신산업 473조 세계시장의 물꼬를 트는 성과로 2021년 거버넌스정치대상 최우수를 수상한바 있다.

또한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대상, 행안부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으로 3년 연속 수상을 거두고, 경기도 대회 시상금 전액을 신기술 테스트베드 추진사업에 반영하는 등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명예를 떨쳤다.

최대호 안양시장은"공무원의 혁신적 사고가 시민행복을 앞당기는 요인이 된다"며,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와 아울러"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안양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규제혁신 의지와 적극행정이 더욱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정부/기자

인천 서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사업장 4곳 적

"감시활동 계속해 오염사고 막고 불법행위는 엄중처벌"

인천 서구는 지난 17일까지 인천자율환경연합회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일 3개조를 편성해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실시됐다.

서구는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로는 A업체는 의무사항인 대기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고 B업체는 대기배출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의무사항인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실시함과 아울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처분하고 아울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사업장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환경감시활동으로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경기도, 연말연시 호텔·테마파크 등 관광분야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 실시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관광분야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 특별 점검 실시

경기도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숙박시설 및 유원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와 돌파감염 등 확진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자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고 위험성이 높은 관광호텔, 스키장내 콘도, 테마파크(종합유원시설)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관광숙박시설은 ▲객실당 4인 이하 이용 준수 여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등을 점검하고, 테마파크 등 종합유원시설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모일 우려가 있는 불꽃놀이, 공연 등 행사 자제 ▲마스크 착용, 수용 제한 인원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작년 4월 말부터 현재까지 19회에 걸쳐 법정 관광지, 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 야영장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광시설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해 미비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고 있다. 내년에도 명절연휴, 휴가철 등에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 이용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성탄절·연말·연시를 맞아 관광숙박시설에서 가족·지인 간 모임이 많이 이뤄지고 해넘이, 해맞이 행사 등으로 도내 주요 관광지와 유원시설에 이용객이 집중돼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며 "사업주와 이용객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혜영/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민·관합동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집중점검

광주 동구가 오는 27일까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담당공무원 및 민간 환경단체로 이루어진 2개조 점검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민원 유발사업장과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장 비산먼지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해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구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에 집중적으로 민간환경감시원을 채용.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 대처해 왔으며 분기별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별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운영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현장지도를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위반사항 발생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면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깨끗한 대기질 확보 등 구민 건강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제주도, 화이트 크리스마스엔 수도시설 한 번 더 점검해요!

25~27일 대설 • 한파 예보에 따른 수도시설 동파방지 예방활동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25~27일 대설 및 한파 예보에 따라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방지대책」에 맞춰 행정시 및 유관기관과 함께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기상청은 25~27일 제주도 중산간과 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본부는 수도시설 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덮개, 동파방지팩 등 사전 보온조치를 추진했으며, 동파 시 긴급 복구반 등을 편성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동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해요! 수도시설 동파방지 1, 2, 3' 대도민 캠페인 전개와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올해 성탄절 시즌 대설 및 한파 예보에 따라 도민들께서 수도시설 동파방지에 대비기를 당부드리며 제주도는 동파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방지 요령

① 계량기함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한다. ② 계량기함 내부를 헌 옷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 ③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 등으로 충분히 밀폐해야 한다.

최재은/기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제주기업 유통판로 확대·여성폭력 근절 강조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연말 민생 현장소통 마지막 날인 24일 제주스타상품기업인 에코제이푸드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찾아 제주기업의 유통판로를 넓히고 여성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정의 지원과 노력을 약속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제주시 애월읍 ㈜에코제이푸드를 방문해 생산과정을 살피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2014년 8월 제주관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창업한 ㈜에코제이푸드는 제주지역 최초로 HACCP 인증을 받은 제주스타상품기업으로 과자와 빵류 제품을 제조·유통하고 있다.

앞서 구 권한대행은 연말 민생 현장소통으로 20일 서귀포시 일대 감귤수확 현장, 스타트업베이, 제주CCTV관제센터를 방문하고, 21일에는 제주시 수협 수산물 위판장,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애덕의 집, 가룰로의 집을 찾았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에코제이푸드 현장 간담회에서 "제주에서 운영하는 더큰내일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베이 등이 스타트업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판매처 확대, 사업·행사유치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권한대행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하도록 돕는 역할은 도에서 맡고 기업을 더 발전시키는 것은 민간의 몫"이라며 "민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융·복합시키고 시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주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어서 구만섭 권한대행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방문해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강조했다.

구 권한대행은 "최근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을 포함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홍보활동과 함께 예방 및 치유활동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센터에서 여성폭력의 유형, 장소, 시간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관련 부서에 전달해주면 정책 홍보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재은/기자

여수시 ,'긴급 이동 멈춤 기간' 위생업소 방역현장 점검

영업시간 • 사적모임 인원 • 방역패스 준수 여부 집중 점검

여수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방역현장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식당, 카페 및 유흥 단란주점, 목욕장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시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6개 반 50여 명이 참여 민관합동으로 다음달 2일까지 방역상황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영업시간과 방역패스 준수여부, 마스크 상시 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관리자를 통한 자율적 책임 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

특히 18일부터 정부의 강화된 방역 정책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영정지, 형사고발 조치를 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일상회복을 위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와 긴급 이동 멈춤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2일 오는 25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 24시까지 9일간 긴급 이동 멈춤 시행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김동일/기자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안전관리 위반사항 47건 적발

부산광역시는 2021년 하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내버스에 비해 운영 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마을버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마을버스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됐다.

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과 함께 마을버스운송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해 전체 61개 업체의 마을버스 571대 중 33개 업체 290대를 점검했으며,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정비·점검, 운송 사업자·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15건) ▲타이어 마모 등(7건) ▲차체 긁힘 및 부식(4건) ▲차량범퍼 손상(3건) ▲소화기 충압 불량(2건) ▲시트 불량(1건) ▲벨트 불량(1건) ▲기타(14건) 등 총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대체로 경미해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는 위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그동안 주기적인 점검으로 운송사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을뿐 아니라, 마을버스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등 내·외부도 청결하게 유지돼 점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운송사업자의 자체 점검도 유도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두밀사거리 교통개선공사 현장방문

은수미 성남시장은 24일 오후 3시 운중동 두밀사거리 교통개선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시설물을 점검했다.

은 시장은 보도육교 및 안전통학로 공사 현장을 확인하며"두밀사거리는 교량 하부에 위치해 8개의 횡단보도, 4개의 교통섬 구조로 이루어진 교차로로 보행자들, 특히 인근 산운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우리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시민들의 통행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도육교가 인근 운중저류지까지 연결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참 좋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20년 9월 두밀사거리상 보도육교 설치 및 하산천을 이용한 하천변 안전통학로 설치를 계획했고,'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과 협의했다.

시는 두밀사거리 교차로 내 교통섬 삭제 및 정형화, 중로2-167호선(가칭 서판교터널) 도로개설 및 우회전 전용차로 추가 설치, 투광기 및 신호/과속단속 CCTV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저소음 도로포장 등 교통환경 개선사항을 반영해 공사를 진행했다.

작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작년 5월 착공했다.

현재 공정률은 약 96%로 내년 2월 7일 보도육교 및 안전통학로 개통을 목표로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및 하천변 안전통학로 LED난간 설치 등 마무리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은 시장은"두밀사거리 교통개선 공사를 통해 판교지구 개발 이후 10년 이상 지속된 오랜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성율/기자

속초시, 대설대비 상황판단 및 점검회의 개최

12월 25일까지 영동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속초시가 대설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12월 24일 오전 11시 김철수 속초시장은 PC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대설대비 상황판단 및 대책 점검회의에서 각 부서장에게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 제설대책 대응 매뉴얼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특히,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도로·교통·자치·안전총괄 부서에서는 실시간 상황 소통 유지하면서 동주민센터에서 제설장비, 제설제, 인력지원 요청 시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태세에 철저를 기하라고 강조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차량은 도로변 주차보다는 대형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주시고 특히 내 집앞, 내점포앞 눈 치우기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경산시, 수성구와'미래를 여는 청년협력지구'조성안 마련

경산시는 24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최영조 경산시장,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조용성 수성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성·경산 경제협력 실천전략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앞서 진행한' 수성·경산 경제협력 기본구상 용역'에서 제시된 전략과제를 보다 구체화하여 양 도시 협력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지난 6월 착수한 것으로, 이날 보고회는 그간 수행해 온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제안한 내용의 핵심은 '미래를 여는 청년협력지구' 조성으로 블랙홀에 비유될 만큼 심화되어가는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인재 유출이 끊이지 않고 지역거점대학까지 정원이 미달되는 지방 위기를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생태계 조성, 문화역량 강화, 삶의 가치 확대를 개발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 창의문화 콘텐츠, 웰니스 융합 산업의 중점 육성이 제시되었다. 한편,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청년협력지구 조성이 포함된 제20대 대선 지역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협력지구가 대구·경북 협력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성구와 함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최영조 경산시장은 "전국적으로 초광역정부의 출범을 추진하는 시점에, 우리시·수성구가 대구·경북 협력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청년협력지구가 대구·경북의 새로운 도약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혁/기자

안동시, 원도심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대응

안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속적인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 시책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 10개 공모사업 선정, 원도심 상권 부활을 위한 굳건한 발판 마련

시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며, 지속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중기부 공모사업인'신사업창업사관학교'설치 지역으로 선정되어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교육부터 체험점포 운영, 실전 창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창업을 지원하고, 예비 소상공인과 경북 지역의 다양한 창업 자원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중기부 공모사업인'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되어 5개 시장 및 상점가 일대(중앙신시장, 구시장, 남서상점가, 문화의거리, 음식의거리)에 5년간 80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침체된 원도심 상권의 부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스마트오더 및 스마트기술 도입,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를 지원하는'스마트 시범상가', 동네슈퍼를 스마트슈퍼로 탈바꿈하는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온라인시장 장보기 및 온라인 전국배송을 지원하는'네이버쇼핑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마케팅 진행을 지원하는'고향시장 행복어울림 마당',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외식업소 및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 원을 환급해 주는'외식할인지원'등에 선정되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하였다.

▶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 시책 신속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였다.

지난 2월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방역조치 강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안동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총 3,803개소, 39억 원을 지원하였고,'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3,404개 업체, 7억 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0.8~1.3%를 지원하는'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11,292개소, 1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지난 1월'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발행, 11월에는 카드형 안동사랑상품권인'안동사랑카드'를 발행하였고, 상품권 10% 연중 할인 시행과 상품권 발행 한도 증액(월 70만 원→100만 원) 등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에 힘썼다. 안동사랑상품권은 12월 말 현재 판매액 500여억 원을 달성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으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방역소독 실시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수시 점검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공설시장인 용상시장 상인들의 임대료 경감을 위해 1천5백만 원의 사용료 감면과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4개시장에 위탁대행료 1천만 원을 감면하여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안동시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덕자/기자

영천시, 'FREE한 데이터 도시 완성'

영천시는 시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과 정보격차 해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확대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천시는 기존 관내 434개소에서 무선 인터넷(WiFi)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KT)와 '2021년도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357개소의 무선 인터넷을 확대 구축하고 내년부터 총 791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가지·인구밀집지역, 공원,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장소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인터넷 이용 편의도모는 물론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복지 여건 조성을 위해 관내 경로당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영천의 대표적 관광지인 보현산, 임고서원, 한의마을 등 영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지역 역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이 된 요즘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환경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 격차를 해소하고 통신복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천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불편 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구축을 추진한 영천시는 현재까지 경로당 433개소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버스정류장 등 총 791개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했으며 연간 이용자 3,300만 명, 데이터 사용량 160,000GB, 연간 절감액은 3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동호/기자

'지역 산업 발전 앞장'포항시, 2021년 최고장인 선정자 증패 및 증서 수여식

포항시는 24일 '2021년 포항시 최고장인 증서 및 증패 수여식'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포항시 최고장인'은 지역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한 자로 산업현장에서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관련조례에 의해 선정된다.

지난 11월 16일 포항시 최고장인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원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8명이 선발됐다.

올해의 최고장인은 금속재료제조 2명(오창석, 강찬이), 기계정비 1명(이정호), 주조 1명(이종일), 정밀측정 1명(백선현), 미용 1명(김순덕), 전기 1명(이정한), 화훼장식 1명(김정희)로 총 7개의 직종에서 8명이 선정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다양한 경험들로 본인의 위치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앞장선 분들을 포항시 최고장인으로 만나 뵙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최고장인을 비롯한 기술자들이 노고를 인정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노아·장용수 기자

'일 잘하는 의성군', 올해 시책평가 수상 휩쓸어

의성군이 올해 행정혁신,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농·축산, 도시·환경 등 군정의 모든 분야의 시책평가에서 48건이나 선정되면서 '일 잘하는 의성군'으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또한 연말에 다수의 시상식이 열리는 만큼 더욱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평가 최우수상, 지방재정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상, 2021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 인증제 장관표창 등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부터 의성형 보건복지 모델'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복지서비스 시행에 앞장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분야 최우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북도가 주관한 평가에서는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2020년 규제개혁 시군평가 최우수, 중소기업 육성시책 시군평가 최우수, 경상북도 환경상 최우수 등 33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일잘하는 의성군'의 위상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군은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사업,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을 가리지 않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대구경북 최대 SOC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과 국정감사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청년정책(이웃사촌 시범마을) 등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의성군이 주요 사업뿐만 아니라 이 외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업 추진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분야에서 소홀함 없도록 900여 공직자와 함께 노력했다"며"새해에도'군민이 행복한 의성'을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정성혁/기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조직안정과 성과 창출을 견인할 정기인사 단행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4월 출범한 제38대 부산시정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인사 폭을 최소화하여 조직안정을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각종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시장공약 등 핵심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승진에 있어서는 성과와 공정의 원칙을 계속 준수하며, 코로나19 등 각종 현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성과를 거둔 간부를 과감히 발탁해 열심히 일하는 곳에 보상이 있도록 하였으며, 전보에 있어서는 혁신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핵심부서에 배치하여 시장공약 등 핵심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역량을 결집하도록 하였다.

3급 국장급 직위는 공석 직위를 위주로 혁신역량을 갖춘 유능한 간부를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배치하였다.

"기획관"에는 심재민 신공항추진본부장을, "교통국장"에는 조영태 사회복지국장을, "신공항추진본부장"에는 송광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을, "상수도사업본부장"에는 박진옥 교통국장을, "낙동강관리본부장"에는 홍경희 동래구 부구청장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에는 정영란 낙동강관리본부장을 수평 이동해 임용했고, "사회복지국장"에는 이선아 총무과장을, "해양농수산국장"에는 김유진 경제일자리과장을 승진 발탁하였다.

또한 "수영구 부구청장"에는 이용주 지방부이사관이 자리를 옮겼으며, "동래구 부구청장"에는 임창근 청렴감사담당관을, "사하구 부구청장"에는 이병석 맑은물정책과장을 승진 발탁하였다.

4급 과장급 직위에는 소상공인지원, 투자유치, 코로나19 대응, 택시행정, 관광진흥 등 각자 맡은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간부를 발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곳에는 확실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36.7%)임에도 이번 4급이상 인사에서 13명(3급 2명, 4급 11명)의 여성 간부를 대거 발탁 승진하였고, 사회복지국장, 해양농수산국장, 기획담당관, 남북협력기획단장, 하천관리과장, 청렴감사담당관, 기후대기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여성공무원으로 채웠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38대 부산시정이 짧은 기간이나 성과와 공정한 인사로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그간 추진해 온 경제, 투자유치 등 핵심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국민여러분 남해로 오시다!"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출발 퍼포먼스

'2022 남해군의 방문의 해' 출발을 알리는 퍼포먼스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손 모아 기다리는 12월 31일 개최된다.

'남해군 방문의 해 출발퍼포먼스'는 군민과 함께 방문의 해 시작을 알리는 선언식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당초 2021년 해넘이와 2022년 해맞이 행사와 겸해 대면 행사를 계획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하게 됐다.

주요행사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펼쳐진다.

먼저 12월 31일 오후 3시부터 읍 시가지를 행진하는 '바투카타 타악 밴드' 공연이 두 차례 펼쳐진다.

이어서 남해대교의 형상을 한 'Again 1973 홍보탑' 제막식이 유배문학관 앞에서 열린다.

'Again 1973 홍보탑'은 넓이 2.4m, 높이 8m 금속재질로 제작된 것으로, 1973년 남해대교 개통과 더불어 관광 부흥기를 맞이했듯, 2022년을 기점으로 또 한번의 새로운 '관광 남해'로 도약을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막식에는 민관협력추진위원 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유배문학관 광장에는 '미디어 타워'가 설치돼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군민과 관광객들을 만난다.

미디어 타워를 통해서는 남해군 관광 소개 영상물과 더불어 홍보대사·향우회·노인·여성·청년·어린이·봉사단체·상공인·건설업법인·농수산물생산자단체·체육회· 체험휴양마을·민관협력추진위원회 등 관내 10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응원 메시지가 송출된다.

12월 31일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전야제의 하이라이트는 저녁 8시부터 20분간 진행될 '희망의 라이트 불꽃쇼'라 할 수 있다.

불꽃은 남해군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발사될 예정으로 100미터 상공에서 개화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읍내 전 지역에서 불꽃쇼를 감상할 수 있다.

방문의 해 첫날인 1월 1일은 친절, 미소, 청결, 참여, 안전이란 주제로 '남해 마중 시가지퍼레이드'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중구 문화관광과장은 "방문의 해 출발퍼포먼스에 온 군민을 초청해 함께 어울려 축하하고 싶었으나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무척 아쉽다"며 "라이트 불꽃쇼는 읍내 전 지역에서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많이 즐겨 달라"고 안내했다.

한편 남해군은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기간 동안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해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연중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상주은모래비치 썸머페스티벌과 독일마을 맥주 축제 등 기존 대표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기획하는 한편, △전통대보름 민속예술공연 △김만중 문학축전 △남해대교 문화이벤트 △별빛달빛 문화기행 △금요시장 별밤포차 △파독기념 독일마을 야외음악회 △노도문학의 섬 작가와의 만남 △테마별 감성충전 여행상품 △남해동학문화예술제 △보물섬 감성캠핑 △전국청춘가요제 △허니문 프로젝터 등 다양한 문화 축제가 새롭게 펼쳐진다.

남해군은 연중 펼쳐지는 고품격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에는 즐거움과 힐링을, 군민에게는 소득 창출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강영훈/기자

조규일 진주시장, 교통약자들의 이동여건 개선에 관심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3일 오후 문산읍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에서'디지털 리빙랩 프론티어 2기'참여자 및 관계자 6명과 함께 12월'시민과의 데이트'를 진행했다.

디지털 리빙랩 프론티어는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공동체사업단이 주최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인 '작은시선'과 ㈜아이피캠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교통약자의 이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되었다.2기 프론티어는 지난 10월 진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된 20명으로, 1개월간 GPS 기반의 장애물 정보 수집 앱 서비스인 '비에프'를 활용하여 깨진 보도블록, 불법주차 등 교통약자 이동 불편 원인을 조사하는 활동을 펼쳤다. 조사 자료는 사회적 협동조합 '작은시선'이 개발한 휠체어 사용자 맞춤 정보제공 앱인 '윌체어'에 등록되고 있다.이날 데이트에 참여한 프론티어 회원은 진주시에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떤 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앞으로 추진 예정이거나 검토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더해 내년 3기 디지털 리빙랩 프론티어 사업에 진주시도 사업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하기를 건의하기도 하였다.조규일 시장은 "여러분의 활동이 일상생활 속 교통약자의 불편 사항 개선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우리 시도 '무장애 공감도시 진주'를 목표로 다 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경상남도 한일 8개 시도현지사, 지방회생을 위한 연대 협력 의지 다져

23일 경상남도 주재로 제29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 개최

경남도는 23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의 주재로 '제29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일해협을 사이에 둔 한국의 경남·부산·전남·제주와 일본의 나가사키·야마구치·후쿠오카·사가, 한일 8개 시도현으로 구성된 본 회의는 1992년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로 30년간 단 한 번의 중단없이 회의를 거듭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하 권한대행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지사,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지사, 나카무라 호도 나가사키현지사, 무라오카 쓰구마사 야마구치현지사 등 8개 시도현 지사가 참석했다.

회의는 '지방 회생을 위한 포괄적 대안 마련'과 '도시재생사업 및 매력적인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하 권한대행은 주제발표를 통해 쇠퇴지역의 특성에 맞춘 도시재생 정책과 공동체 활성화, 청년인재 양성 등에 중점을 둔 경남의 도시재생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시범사업, 예비사업, 본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고, 청년인턴십 운영, 도시재생사 자격제도 등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권한대행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교류를 위한 교환연수'를 제안했다.

이 날 시도현 지사들은 지방 회생을 위해 지방정부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우호 관계의 지속과 교류 확대를 결의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한국과 일본은 수도권 과밀의 폐해와 지방 소멸의 위기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일 8개 지방정부의 도시재생과 지방회생을 위한 시책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양국 지방의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1992년 제주를 시작으로 매년 한일 양국 간 윤번제로 개최하고 있고, 환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화상회의를 경상남도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 회의는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개최된다.

윤광남/대기자

의령군, '의령읍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순조롭게 추진

의령군은 의령읍 노후하수관에 불명수 유입과 수질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사업비 7,078백만원(국비32%, 지방비68%)을 투입하여 시행 중인 '의령읍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의령읍 남산천 주변은 현재 합류식 하수도를 사용하여 오수와 우수를 동일 관로에 의해 배제하는 방식으로, 오수 일부가 우수배수로 및 하천으로 방류되어 수질오염 및 악취로 인한 고충이 제기되어온 지역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관로 교체 및 관로 신설 5.3Km, 중계펌프장 설치 2개소, 배수설비 98개소를 설치하게 된다.

의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마을별 시공구간에 안내문을 배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이 있으면 의령군청 상하수도과 하수도 담당으로 문의 혹은 현장사무실(의령읍 충익로 30-7)로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영훈/기자

하동군, 섬진강에 경상도와 전라도 잇는 남도2대교 들어선다

하동군 화개면과 구례군 간전면을 잇는 섬진강의 남도대교에 이어 하동군 악양면과 광양시 다압면을 연결하는 남도2대교가 건설된다.

하동군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섬진강의 남도2대교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군이 경남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지속적인 방문해 건의한 성과로, 2020년 국토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핵심사업에 반영된데 이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남도2대교는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를 잇는 총길이 350m, 폭 13.5m 왕복 2차로 1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남도2대교는 내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3년 1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4년 12월 완공 계획이다.

현재 섬진강 양안간 설치된 섬진교~남도대교 간격은 20.4㎞로, 전국 국가하천 평균 교량 간격인 8.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섬진강 양안 주변의 대표 축제인 하동 벚꽃축제, 광양 매화축제, 구례 산수유축제 및 주변 관광지의 연중 관광객이 547만명에 달하나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해 봄철 축제기간에는 극심한 차량통행 지체로 교통이 마비될 정도이다.

남도2대교는 실시설계 완료시 경남도, 전남도, 하동군, 광양시 공동시행 계획으로 준공시 차량 이동거리 14.7㎞, 이동시간 11분 단축된다.

이에 따라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경남도와 전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섬진강 유역의 우수한 경관과 역사, 관광 및 문화지원 활용을 통한 동서화합, 섬진강 예술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남도대교는 2003년 하동군 화개면 탑리~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58m로 가설돼 영호남 화합의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최광용/기자

산청군, 지리산이 만든 산청 농식품 미국 수출길 오른다

지리산 자락 산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식품들이 미국으로 수출된다.

산청군은 23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우수 농식품 수출 상담회를 개최, 30만 달러(한화 약 3억5000만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출 계약식에는 이재근 군수와 미국 최대 규모 한인 온라인 쇼핑몰 'Cconmausa(꽃마USA)'의 정태희 이사, 예전푸드앤티 전주현 대표, 강종상 산청군수출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수출계약 품목은 산청군양협의 누에환과 오디제품, 미미에프의 팽떡, 산청기능성콩영농조합법인의 누룽지, 하늘다리의 생강원액, 지리산약초랑의 한방오색부각, 참들애바이오푸드의 칡즙, 시골농장의 꿀과 감말랭이, 홍화원의 홍화제품 등 11개 기업의 20여개 품목이다.

또 지리산 이혜령발효정원, 지리산별마루, 다혜사과, 선돌, 지리산아홉숲, 지리산 산청상황버섯 등 6개 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1대1 수출상담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했다.

상담회 이후에는 지역 내 수출기업 15개사가 참여하는 수출간담회도 진행됐다.

간담회 참여 기업과 산청군수출협회는 수출자문, 안테나샵 설치,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등 다양한 수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산청군은 올해 해외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면 수출상담회는 물론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해외 온라인 판촉전을 가졌다.

특히 역량 단계별 수출지원사업과 수출기반 확충사업, 수출 운영비 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수출업무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동월대비 36% 증가한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청딸기와 산청곶감 등 우리 지역 농산물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로 올해 3월에는 '2021년 경남도 농수산물 수출'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 판촉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병철/기자

밀양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밀양시는 가족친화 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에 선정됐다.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직원 만족도 등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처음으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밀양시는 이후 2019년 2년간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받고 올해로 유효기간 연장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경영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 재인증에 성공해 2024년 11월까지 가족친화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및 VDT(거북목) 증후군 예방프로그램 운영, 여가 생활을 위한 휴양시설 지원,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 성과와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 부분에서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아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 박일호 시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 직원들의 소속감 향상과 사기 상승으로 이어져 곧 높은 성과로 나타난다"라며, "앞으로도 일·가족 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가족친화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2021년 장성 빛낸 우수정책 베스트 10 최종 선정…

장성군이 군민과 공직자 설문조사를 거쳐 올해 '우수정책 베스트 10'을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건립사업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이목을 끌었다.

앞서, 군은 부서별로 추천한 37건의 정책 및 사업들 가운데 군정 발전 기여도와 체감도 등을 기준으로 24건을 추린 다음, 부서장 설문을 통해 총 15건으로 후보군을 압축했다. 이어서 군민과 공직자 1531명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해 다득표 순으로 1~10위를 선정했다. 그 결과, 2021년 장성군을 빛낸 우수정책 중 1위는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건립'이 차지했다.

황룡강변에 위치한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은 부지면적 7만 6000㎡에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육상트랙, 씨름장 등을 갖추고 있다. 1200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해 이용 편의를 높였으며, 황룡강을 조망할 수 있는 수변공원도 조성되어 있다. 인근에 문화·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옐로우시티 스타디움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의 건립은 장성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러나 마땅한 건립 부지가 없어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조사를 이어가던 장성군은 황룡강 취암천의 휘어진 물줄기를 직강화해 부지를 확보하는 창의적인 행정으로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45억원 규모의 부지매입비 절감과 생태환경 개선 효과도 거뒀다.

공설운동장 건립 다음으로는 올해 초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경영난에 빠진 지역상권과 위축됐던 민생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됐다는 평가다. 이어서 ▲군 청사 정문 골든게이트 ▲황룡강 은행나무 수국길 ▲과수전정단, 시민정원사 ▲전남 최초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장성호 수량조정위원회 설치 ▲장성무궁화공원 조성 ▲문화대교 일원 교통 인프라 확충 ▲농기계임대사업 종합평가 전국 1위 순으로 선택을 받았다.

한편, 조사 시기가 달라 올해 우수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980억원 규모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정부예산 28억원 반영이 '특별 선정'으로 추가됐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난해 우수정책이 굵직한 중·장기 프로젝트 위주였다면, 올해에는 군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주로 선정됐다"면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옐로우시티 장성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오홍곤/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2021년 민원행정 만족도 '매우 우수'

민원인 329명 참여…88.5% '만족한다'

광주 동구는 '2021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15일간 구청과 13개동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앱 '두드림' 방문자 32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결과를 공개했다.

만족도 조사는 담당 공무원의 ▲적극성 ▲전문성 ▲친절도 ▲신속성 등 민원행정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그 결과 응답자의 88.5%가 만족한다, 91%가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 보면,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적극성, 공정성, 전문성 등에서 91~90% 수준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민원실 환경 및 시설 이용 편의성은 82%로 행정복지센터 주차시설 확보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재난지원금 지원 접수, 백신 접종 등 각종 민원행정이 폭증한 상황임에도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은 지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평가받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원행정서비스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전 직원에게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속적인 친절 마인드 함양교육 실시를 비롯 민원사무, 관련 법규 숙지 등 전문성을 키워나갈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명예행정관제 운영, 민원인 전용 팩스 설치, 거동 불편 장애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 등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쏟아왔다.

김덕윤/기자

전라남도

곡성군, 전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수기관 선정

곡성군이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1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곡성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 제공기관 현장점검, 코로나19 장기화 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들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로 곡성군은 2022년도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되어 주민에게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이용자들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면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기존 국가 주도형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곡성군에서는 아동, 청소년, 노인 관련 9개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제공 장소 휴관, 수업 중단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진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군민들께서 필요로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상홍/기자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 생명 • 평화 • 공동체 운동 앞장 다짐

24일 목포서 전남지도자대회… 이웃사랑 나눔 등 유공자 26명 표창

전라남도새마을회는 24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2021 전라남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열어 올 한해 새마을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고, 생명·평화·공동체 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이귀남 전남새마을회장과 22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한 1만 7천여 전남 새마을지도자를 위해 유튜브로 중계했다.

김병윤 새마을지도자담양군협의회장과 서옥란 함평군새마을부녀회장이 새마을훈장 근면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새마을포장 3명, 대통령 표창 5명 등 26명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김병윤 회장은 35년간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삼지천 주변 정화활동 및 환경오염 감시, 홀몸 노인 장수사진 제작, 사랑의 연탄 나누기, 독거노인에게 쌀 전달 및 안부 살피기, 보금자리 고쳐주기 등 이웃사랑 나눔에 앞장섰다.

새마을지도자로 20년 동안 활동한 서옥란 새마을부녀회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원재활용품을 수집하고 판매한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활용하는 등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다문화가족 출산용품 지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자원봉사 활동으로 새마을운동에 기여했다.

김영록 지사는 격려사에서 "새마을지도자는 생명·평화·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방역, 백신 접종 캠페인, 깨끗한 전남 만들기 범도민 운동, 우리 농수산물 홍보활동, 사랑의 김치담그기, 연탄 배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한 해를 보냈다"며 "새마을회 51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로서 앞으로도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세계적 흐름을 선도할 전남의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안/기자

목포시, 수출전략형 김 가공산업 육성 위한 초석 다지다

목포시가 수출전략형 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지난 23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수출전략형 김 가공산업 육성)' 최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목포가 전국의 제1의 수산식품산업도시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수출전략형 김 가공육성 사업은 전국 생산량 1위인 전남 마른김을 고차 가공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전남의 김 산업 선도를 목표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추진 중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제품 및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수산식품기업 지원,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마른김 특성 분석 연구개발 결과 등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기업지원 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졌는데 참여기업 15개사가 221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가운데 신시장 개척 28건, 신제품 개발 13건 등에 따라 65억8천만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총매출은 2,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394억8천만원(19.7%)이 올랐다..

이영철 센터장은 "15개 참여기업과 지원센터가 일군 올해 성과는 목포시 수산식품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축적된 기술력과 수산가공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목포가 전국 제1의 수산식품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진도군, 공공예금 이자 수입 '역대 최고'

진도군이 올해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1년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년 동안 평균 이자 수입 24억원보다 67% 증가한 4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계속된 예금이자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최고 금액이다.

군은 이자 수입이 증가한 이유로 세입·세출 자료를 기초로 자금 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자금 소요액을 정확이 예측했다.

특히 유휴자금을 장·단기별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구분해 분산 예치하고 중도해지를 최소화 하는 등 전략적 자금 운영으로 이자 수입 극대화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확하고 철저한 자금 관리와 효율적 자금 운용으로 재정수입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양호/기자

해남군, 2022년도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국비 1억원 확보, 땅끝마실 프로그램 장기체류형 상품으로 개발

해남군이 2022년도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문화관광체육부의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은 방문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 지역다움을 체험하고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하는 관광(여행)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통해 해남군을 포함한 9개의 지자체가 새로 선정됐다.

군은 코로나로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해남 생활관광 프로그램'땅끝마실'을 시범 운영해 2개월간 38팀 168명의 관광객이 생활관광을 체험하고, 지역 소득을 창출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땅끝마실' 생활관광 프로그램을 3박4일형, 6박7일형 등 장기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운영하고, 해남패스와 마실키트 등 체험객에게 다양한 편의 제공 프로그램도 마련해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새로운 관광산업 분야인 생활관광이 지역에 더욱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활성화 및 주민 소득을 창출해내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양영율/기자

전남도, 올 규제업무 최우수 지자체로 영광군 선정

전남도, 우수 광양 • 여수, 장려 곡성 • 영암 • 화순 등 6개 시군 시상

전라남도는 올해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해 규제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영광군 등 6개 지자체를 규제혁신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

평가 결과 올해 최우수상은 영광군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광양시와 여수시가, 장려상은 곡성군, 영암군, 화순군이 각각 수상했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각 350만 원, 장려상 각 200만 원이다.

최고 자리에 오른 영광군은 올해 민생규제 발굴, 중앙부처 건의과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실적 지표 등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군민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규제 발굴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규제혁신 업무 추진에 대한 시군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해마다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해, 시상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규제개선 건의과제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선정 건수 ▲현장 중심 지방규제 발굴 추진 실적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실적 ▲업무협조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현장 중심 지방규제 발굴 추진 실적 지표를 신설,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게 하는 등 현장중심형 규제 발굴에 가중치를 뒀다.

전남도는 내년에도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주관 수상실적, 도 경진대회 우수 시군 결과를 지표에 포함해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 열심히 발로 뛰어 성과를 낸 우수사례가 확산하면 시군 공무원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이같은 분위기가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부안 격포 닭이봉 전망대, 서해안 랜드마크 우뚝

건축 35년 만에 새단장… 부안고려청자 모티브 외관·야간 경관조명 명소 기대

"새롭게 단장한 격포 닭이봉 전망대에 올라 은빛 모래가 반짝거리는 격포해수욕장부터 만선 고깃배들이 넘실거리는 격포항까지 둘러보고 있노라니 새삼 부안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지난 23일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닭이봉 정상에서 새롭게 단장한 닭이봉 전망대와 관련된 과거 추억을 소환하기 위해 찾았다는 김기삼(56·부안읍)씨의 말이다.

김기삼씨는 "그동안 국립공원 지역에 있어 개발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전망대가 소규모로만 수선·관리돼 노후화된 모습을 떨칠 수가 없었다"며 "새롭게 단장한 닭이봉 전망대를 보니 이제 부안의 랜드마크로 우뚝 선 모습에 군민으로서 가슴이 뭉클하다"고 감격해했다.

건축된 지 35년이나 된 닭이봉 전망대는 지난 1988년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그동안 격포 채석강 주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왔지만 시설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부안 변산마실길 및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서해안의 절경과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투입해 격포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사업을 완료했다.

새롭게 단장을 마친 닭이봉 전망대의 외관은 전체적으로 부안고려청자 형상으로 건축됐으며 꼭대기에는 고려청자 매병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고 건축물 외벽은 고려청자 사발 형상의 타공패널로 둘러져 있다.

또 주변과 어울리고 특색 있는 야간 경관조명시설이 설치돼 격포 밤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황홀경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내년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사가 완공될 예정인 내년 5월부터는 1층 휴게공간, 2층 국가지질공원 및 부안 변산마실길 탐방안내센터, 3층 홍보관, 4층 전망대 등 변산마실길 및 국가지질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닭이봉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뷰(view)는 수려한 격포 채석강의 해식절벽과 솔섬의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황홀한 장관을 연출한다"며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부안에서 가족·연인·친구와 영원히 잊혀 지지 않을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사회적경제 걸음마 뗀 남원시, 민관 협치로 지속성장 방향성 제시

남원시의 사회적경제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2010년 전통문화 체험, 교육, 공연 업체인 문화기획 섬진강이 관내 첫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남원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9개소, 예비사회적기업 8개소, 마을기업 9개소, 사회적 협동조합 16개소로 42곳으로 확대되었다(2021년 11월 기준). 여기에 협동조합 86개소로 총 사회적경제단체는 128개소에 달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적 증가 뿐 아니라 질적 향상 또한 주목할 만하다. 올 한해 남원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곳은 지리산처럼, 서남환경, 초록나무협동조합 등 3개소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경제에 진입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서, 기업의 자생력이 검증받은 셈이다.

남원시는 사회적경제팀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상담, 교육 및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확대, 사회적경제기반 지역네트워크 구축이라는 4개 부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진입 상담을 필두로 전반기에 사회적경제 진입 컨설팅을 제공해 일반 기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남원시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일반 시민을 위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아카데미를 기획 진행해 큰 반향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추석맞이 명절꾸러미 사업과, 남원시 사회적경제협의회 출범 기념 품앗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존재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효율적인 창구로 기능했다.

올해 남원시 민간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도 괄목할만하다.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의 거버넌스 조직인 남원시 사회적경제협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경제협업체계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랜선박람회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판매지원 등이 이루어져 2021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할만하다.

남원시는 향후 발전 방향성에 대해 원광대산학협력단이 수행한 남원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사회적경제 과제와 비전을 설정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웠으며, 향후 사업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업의 방향설정으로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 선순환을 이끄는 구조로써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체 육성, 시민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 시민들의 '필요와 이익'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운동이다.

또한 귀농 아닌 귀촌 중심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추구하고, 남원시 지역화폐 사업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시되었다.시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실행안을 준비 중이다.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안순엽 과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시민워킹그룹을 구축하여 중간지원조직, 민 관의 효율적인 협치로 우리시가 사회적경제로 성장하고 도약해 정착되도록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대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완주군을 꼽을 수 있으며, 남원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은 완주군과 10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다.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를 향한 여정에서 후발주자인 남원시로서는 좋은 역할모델이 있는 셈이다. 남원시는 지역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일자리창출에 대한 돌파구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선택했다.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를 향한 시의 지원이 민간영역의 노력과 맞물려 도시부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전라북도를 대표할 또 다른 사회적경제 친화도시의 탄생을 기대한다.

이남출/기자

전북도,'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공모 선정

김제시(샐러드 채소), 남원시(포도), 고창군(땅콩)이 2022년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라북도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2년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공모에 총 3개소가 최종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삼락농정 일환인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통해 밭작물 주산지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고, 도와 시·군이 함께 워크숍과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공모에 선정된 김제시, 남원시, 고창군은 각각 샐러드 채소, 포도, 땅콩 품목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고창군은 전국 땅콩 재배면적(3,236ha) 중 9.6%(310.9ha)를 차지하는 땅콩 주산지로 손꼽힌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농가 조직화를 강화하고 기계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또, 해당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전국적 주산지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생산비 절감 분야에서는 수확기, 피복기, 방제기 등 자동화 기계를 지원받아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할 계획이다. 가령 남원시에서 지원받는 무인방제기는 코로나19,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력 부족에 처한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도는 밭작물 주산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단계부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왔다.

2016년부터 매년 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산지 공동경영체 육성에 총 1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2017년부터는 집단 생산단지 중심으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으로 총 132억 원을 투입해 주산지 기계화율을 높였다.

또한 2016년부터 규모화된 주산지에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 필요한 사전 토양·용수 분석비로 총 81억 원을 지원했다.

전라북도 김석면 농산유통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주산지 품목도 확대해 향후 전국 단위 주산지로 명성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협약

완주군이 인산의료재단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과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24일 완주군은 마음사랑병원과 협약을 체결, 마음사랑병원이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5년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김성의 마음사랑병원 이사장, 유미경 완주군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완주군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공고하고,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예산수행 계획, 지역연계 등을 검토해 마음사랑병원을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김성의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생명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음사랑병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체계적인 센터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군산시, 새만금산단 두산퓨얼셀㈜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

군산 새만금산단에 발전용 연료전지 양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협약이 체결되며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군산시는 24일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두산퓨얼셀㈜의 '발전용 연료전지 양산시설' 건립을 위해 두산퓨얼셀㈜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후석 두산퓨얼셀㈜ 전무,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두산퓨얼셀㈜는 79,200㎡규모의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 부지에 총 1,437억원을 투자하고 신규직원 9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 4월 공장 건설에 착수해 2024년까지 공장 건축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투자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완료 후에도 2026년까지 100여명의 추가 고용을 통해 새만금 공장에서 총 190여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두산퓨얼셀㈜는 익산에 소재한 두산그룹 산하 대기업으로 인산형 연료전지(PAFC, Phosphoric Acid Fuel Cell)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용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수소 연료전지 기업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인산형 연료전지와 함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를 개발하고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기존의 연료전지 중 가장 전력 변환 효율이 높아 발전용 및 친환경 선박용 전원으로 사용되며, 최근 선진국에서는 가정용, 자동차용 등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두산퓨얼셀㈜는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와 6공구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관련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퓨얼셀㈜의 입주로 인해 관련 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우수 인재 채용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진행될 새만금산단 5, 6공구 기업유치에도 관련 산업군을 대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후석 두산퓨얼셀㈜ 전무는 "수소경제 내에서 다양한 신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수소 산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라면서, "전문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속성장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수소연료 전지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대한민국 대표 수소기업인 두산퓨얼셀의 군산 새만금 투자 결정을 환영한다."며 "꾸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우리 군산시 주요 산업군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동반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상복 터진 완주군 사회복지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2021년"

5개 팀 전 직원 합심해 노력, 자활사업 장애인 지원 등 각 분야 수상

완주군 '사회복지과'가 최근 각 분야에서 잇따라 수상을 하고, 간부 공무원은 직원들의 롤 모델로 선정되는 등 겹경사를 누리고 있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 노인복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사회복지과(과장 김동준)는 최근 자활분야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군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또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와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도 각각 '우수'와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4개 분야에서 연이어 선진행정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중에서 '자활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올해 처음 있는 일로, 직원들이 힘을 합쳐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역량 강화에 적극 나선 결과여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앞서 지역자활센터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역시 공공기관 의무비율(1.0% 이상)의 무려 2배 이상 되는 실적(올 11월말 현재 2.7%)을 기록, 전국 80여 개 군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독보적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포상금 550만 원을 받게 되는 등 연타석 홈런을 날렸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실시한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완주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3,000만 원을 손에 쥐는 등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열정과 맞춤형 눈높이 행정이 대외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여러 수상으로 상복이 터진 사회복지과는 최근 완주군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김동준 과장이 롤 모델 간부공무원 부문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이하기도 했다. 완주군공무원노조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및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차원에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개인 휴대전화 응답방식으로 실시됐으며, 5급과 파견 등 59명을 제외한 대상자 771명 중 541명이 응답(70.2%)해 김 과장이 롤 모델로 뽑혔다.

사회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부서 특성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원들의 피로가 누증되는 상황에서 여러 수상 소식이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에너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진안군, 모바일로 조난신고 쉽고 빠르게!

스마트조난신고시스템 구축, 긴급구조시 골든타임 확보 기대

진안군이 주요 등산로 100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활용한 스마트조난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진안군이 이번에 구축한 스마트조난신고시스템은 위급상황시 스마트폰 버튼하나로 위치정보를 119로 자동전송, 즉시 조난신고를 가능하게 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자가 국가지점번호판과 가깝다면 국가지점번호판의 NFC나 QR코드를 스캔하면 되고, 주변에 위치확인이 가능한 어느 구조물도 없는 경우에는 '진안군 스마트조난신고시스템'에 접속하면 정확한 위치공유 및 119신고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은 도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뒤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같은 스마트조난신고시스템은 진안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스템 구축을 기획·추진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은 "위치 확인이 어려운 등산로 등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국가지점번호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진안군 스마트조난신고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고, 재난취약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수/기자

충청남도, 도민의 미래 밝힐 '지속가능 발전' 꿈꾼다

도, 24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주년 기념식' 개최

충남도는 24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허재영 충남지속협 대표회장, 김명선 도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양준화 전국지속협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시민사회 실천 선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 간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충남 지속협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과거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20년을 위해 앞으로의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전 세계 180여 개국 정상이 채택한 '의제21'에 기초해 지난 2001년 창립한 민·관 협치 기구로, 유엔(UN)과 정부가 정한 빈곤·질병, 환경오염·기후변화, 경제·사회적 불평등 분야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도내 실정에 맞는 행동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충남 지속협은 그동안 2000여 명의 위원이 각 분야의 민·관 협치 대표로 참여해 행정 중심의 정책을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정책으로 개선해 왔으며, 도민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인식을 전환하는 데 공헌해 왔다.

또 지속가능한 실천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연구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천·자문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미래 충남의 모습을 그려보는 미래세대와 기성세대 간 대화 시간을 갖고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산업 혁신과 인프라 △양질의 일자리 △기후변화와 대응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 지속협은 '도민의 미래를 밝히는 지속가능한 충남'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한 해 한 해 꾸준히 달려왔다"면서 "지속가능한 충남은 그동안 성장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쉼 없이 달려온 방식을 탈피하고 사회·경제·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며 자연을 지키고 후손의 미래를 생각하는 새로운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지사는 "민과 관이 함께 노를 젓고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할 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원대한 꿈이 이뤄질 것"이라며 "20년 역사를 통해 키워온 '민·관 협치(거버넌스)'와 '공동체 정신'이란 역량이 이러한 미래를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근/기자

양양군,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 재도전

양양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2022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공모에 재도전한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DX), 비대면 맞춤형 스마트관광의 수요증가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해 ICT기반의 관광콘텐츠, 인프라 육성으로 관광기업의 혁신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0년 시범도입 이후 올해까지 매년 1개소씩 선정하였으나, 2022년에는 교통 연계형, 관광 명소형, 강소형 등 총 6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국비 35억 원 등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군은 서핑해양레저특화구역에 양양국제공항, 종합여객터미널과 연계하여 서핑관광, 교통, 숙박, 음식점 등 원스톱 통합예약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주요 교통 및 서핑 스팟에 AR/VR, 메타버스 등 차별화된 스마트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관광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 11월말 공모계획 공고 이후 지역 내 스타트업 기업, 서핑 및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 컨소시엄 모집을 완료했으며, 강원도 관광마케팅과, 강원도 관광재단 등과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후 최종 제출기한인 12월 30일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 해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최종 경쟁단계인 3개 후보지까지 선정되어 경쟁하였으나 아쉽게 미선정 된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양양군을 스마트 관광 생태계 구현을 통해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청주시, 재난위험지역관리체계 2단계 구축사업 추진

청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재해위험지역에 드론·라이다(Liadar)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영상데이터를 구축하는 '재난위험지역관리체계 2단계 구축사업'을 1월 초에 착수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에서는 급경사지 및 붕괴위험지역 281개소에 정밀 정사영상 및 3차원 공간정보영상 구축사업을 완료했으며, 2단계 사업에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재해지역 38개소(병천천지구 등)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식물의 생장이 없는 동절기부터 식물이 성장하고 하천 수위가 변화하는 계절까지 드론에 다중분광카메라와 360VR카메라 등을 장착해 식생 및 지형변화에 대한 다양한 영상데이터를 취득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라이다(Liadar)로 하천 위험지역 및 주요 시설에 대해 현실의 지형처럼 3차원으로 모델링한 정밀영상데이터를 생성해 재난 예방 및 재난상황 발생 시에 긴급복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재난위험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밀영상데이터를 확보하고 재난위험지역을 과학적인 디지털관리체계로 구축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태백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스마트 폴 준공식 개최

태백시는 24일 2주공아파트 정문에서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스마트 폴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냉난방 기능과 휴게공간 등을 갖춘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서, 폭염, 혹한 등에도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태백시장, 태백시의회 의장, 태백시의회 의원, 도의원, 2주공 통장,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개회 및 국민의례, 경과보고에 이어 태백시장의 기념사, 태백시의회의장 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1월 국토부에서 추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시민안전 스마트버스정류장 및 스마트 폴 구축'으로 응모해 지난 3월 최종 선정됐다.

시는 사업비 1,875백만원(국비 937.5백만 원, 도비 187.5백만 원, 시비 750백만 원)을 투입해 지난 7월에 버스정류장 17개소와 스마트 폴 7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에는 ▲실시간 버스정보 시스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온열의자 ▲ 방범용 CCTV 등이 설치됐으며시민의 안전을 위해 태백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태백시장은 "태백시 스마트버스 승강장 및 스마트 폴 준공식에 참석해 주신 태백시의회 의장님, 태백시의회 의원님, 도의원님, 2주공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태백시 스마트버스정류장은 강원도 최초로 시민분들이 기후에 관계없이 편히 쉴 수 있고 시정정보와 버스정보 등 다양한 편의기능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태백시의회 의장은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교통쉼터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나/기자

삼척시, 2022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삼척시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2022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신규설치 ▲기존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설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2019~2021)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적 없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희망자는 이달 27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신청서 작성시 해당가구의 세대주 성명으로 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연탄보일러 설치 시 가구당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설치비 합계금액이 30만원 이내인 경우 실비를 지급한다.

한편, 삼척시는 199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13,452가구에 연탄보일러 설치를 지원했다.

이등원/기자

춘천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3배 이상 증설

춘천 시내버스 내 공공와이파이 데이터가 내년부터 대폭 증설된다.

이에 따라 달리는 버스에서 더욱 많은 시민이 인터넷 서핑 등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춘천시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버스 내 공공와이파이 데이터를 기존 300GB에서 1TB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와 스마트 디바이스 성장, 동영상, SNS, 다양한 앱 사용에 따른 버스 내 트래픽 양을 분석해 데이터양을 3배 이상 늘렸다.

올해 버스 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을 살펴보면 1월 638GB, 2월 663GB, 3월 979GB, 4월 865GB, 5월 919GB, 6월 928GB, 7월 930GB, 8월 891GB다.

1월부터 8월까지 평균 와이파이 사용량은 851.625GB다.

이와 함께 시정부는 어르신들의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지역 내 전체 경로당 358개소에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또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해 어르신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공공와이파이 안내판도 300개소에 신규로 설치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으로 시민들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와이파이 속도 고도화 등 품질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정부는 2019년부터 시내 및 마을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됐으며, 춘천시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통해 연간 78만명이 이용, 약 33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이등원/기자

2021년 청주시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청주시가 지난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 청주시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청주시 지역 내 경사진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주차수급률을 분석해 주차장 신설과 관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난 3월 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청주시 지역 내 주차수급률, 불법주차율 및 주차장이용률 등 데이터를 토대로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기존 공영주차장 복합화를 통한 주차면수 확대, 유료 공영주차장 급지 및 요금체계 조정 필요성,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주차장 안내체계 정비 등 대안을 제시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 지역 내 주차시설 현황과 주차이용 실태를 조사해 주차장 수요와 공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청주시 주차정책에 활용해 주차난을 개선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대전광역시, 시민 공영자전거'타슈'1시간 이용 무료화

대전광역시가 대중교통 환승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시민 공영자전거'타슈' 를 내년 1월 1일부터 1시간 이내 이용할 경우 무료화 한다.

시는 '타슈'를 1시간 이내 이용할 경우 무료로 해 시민들의 근거리 교통 서비스를 향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1시간 이내 이용 후 반납하고 재 대여시 반복 이용도 가능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공영자전거 무료 이용 혜택을 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시가 처음이다.

이 정책은 2020년 9월 14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우승호 의원이 '시민 누구나 본인 인증만 하면 타슈 1시간 이내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하는 공영자전거 운영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후 원안 가결돼 시행되는 것이다.

타슈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 인증을 위해 타슈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폰에서 타슈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타슈 앱을 실행하여 가까운 대여소를 검색하고, 대여 가능 자전거가 있는 대여소에서 QR코드를 이용해 대여하고 목적지 주변 가까운 대여소에 반납하면 된다.

다만 시는 독점적 사용을 막고자 1시간 초과에 대한 추가 사용료를 30분당 500원 부과한다. 1일당 최대 추가 사용료는 5,000원을 부과하는데 회원가입 시 본인이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징수하게 된다.

아울러, '타슈'무인대여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결제 오류, 대여·반납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에 QR단말기를 부착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대여 · 반납이 가능한 공유자전거 시스템 도입키로 했다.

위치기반 공유자전거 대여소 구축이 가능하여 공유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간격을 줄이고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 및 관공서, 쇼핑센터 등에 대여소 1,000개소를 내년 2월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제작중인 신규 자전거 및 QR단말기가 제작완료되는 2022년 3월 말부터는 공유자전거 시스템 2,500대와 기존 공영자전거 2,305대를 병행 운영할 계획으로 출·퇴근길 타슈를 이용하여 10분 이내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역 등 환승지 연계 가능한 근거리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개선된 시스템 도입되는 내년 3월 말부터는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거리 생활형 교통수단이자 버스와 도시철도 등과 연계된 공공교통의 한 축으로써 자전거가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천안시, 대표 임산물 호두 명성 잇는다

천안시가 대표 임산물 호두 명성을 잇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천안시는 천안호두휴게소(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에 호두나무(5년생) 4그루와 호두나무 유래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휴게소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천안이 호두나무 시배지(처음 심은 곳)임을 알리고 우수한 천안 호두 품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호두나무와 안내판을 설치했다.

천안은 우리나라 최초의 호두 재배지로 알려진 곳이다. 고려시대 충렬왕 16년(1290년) 영밀공 유청신 선생이 중국 원나라에 갔다가 임금의 수레를 모시고 돌아올 때 어린 호두나무를 가져왔는데 나무는 광덕사(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앞에 심었다고 한다.

호두나무 시배지답게 천안의 대표 임산물인 호두는 2019년과 2020년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에는 장려상을 받아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기욱 산림휴양과장은 "천안 호두의 우수한 품질 등을 천안호두휴게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 기대된다"며, "호응이 좋을 경우 더 확충해서 호두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임실군 송기중 농촌지도사,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수상

전문농업인 육성, 농기계임대사업소 혁신, 반려동물 산업, 장미원 사업화 인정받아

임실군이'2021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에서 송기중 농촌지도사가 우수상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하는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대회는 매년 농업·농촌 발전사업 실적이 탁월한 농촌지도공무원을 선발, 시상해오고 있다.

참가자는 2021년 8월부터 11월의 대회기간 동안, 최근 5년간의 농촌지도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 및 여론조사, 3차 발표평가를 받았다.

4개 학사학위와 시설원예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부단히 자기 역량을 향상시켜온 송기중 농촌지도사는 당면현안 문제를 풀어가는 혁신적 역량이 탁월하다.

송 지도사는 최근 5년간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 품목조직 활성화 사업, 농기계 임대 사업, 반려동물 산업, 장미공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부과받았다.

신속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극복방안 수립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농기계 임대 수수료를 카드 로텍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였으며, 자원재활용협회와 협업으로 폐농기계 수거비용이 없는 업무시스템을 발굴하였고, 임대 농기계 운송제를 시행하여 농업인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았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와 공동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활동, 농작업단 대행 서비스 운영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가 편익을 증대시킨 결과, 전국 140개 농기계임대사업소 중에서 5위의 성과를 달성하여 국비 1억 원의 포상금도 확보했다.

이 같은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송기중 농촌지도사는 2021년 상반기 적극 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송기중 농촌지도사는"앞으로 디지털 농업시대를 선도하는 영농 기술정보의 체계화, 농업과 농촌의 환경자원 가꾸기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권재경 거창군의회 의원, 민주평통 의장표창 수상

통일정책 추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공로 인정받아

거창군의회 권재경 의원은 지난 24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에서 주관하는 '2021년 민주평통 한반도 기반조성 유공자 표창 전수식'에서 의장표창을 수상했다.

권재경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지역사회 여론형성과 시민단체와의 협력,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 2020년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평통 지원체계를 제도화 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권의원은 "앞으로도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달라는 의미로 주는 상으로 알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헌법기관으로 지역과 직능의 대표성을 지닌 다양한 국민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거창군협의회에는 신승열 회장을 비롯한 46명의 자문위원이 평화문화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장병철/기자

함양군 철갑상어 영어조합법인 이수한 이사,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 수상

함양군 철갑상어 영어조합법인 이수한 이사가 지난 17일 개최된 '제5회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 행사에서 2021년 해양수산 신지식인에 대상을 수상했다.

해양수산 신지식은 창의적인 발상,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개발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해양수산인으로 해양수산부가 선정하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전국에서 모두 6인이 선발됐으며, 이중 이수한 이사가 대상(1위)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함양군 철갑상어 영어조합법인은 함양군 서하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생제 및 수산약품 무사용을 철칙으로 철갑상어만을 전문으로 양식하는 업체로서 2008년 이후 10여년간 4만여미의 철갑상어를 양식하고 있다.

또한, 이수한 이사는 철갑상어 연차별 양식을 통한 지속적인 캐비아 생산을 기반으로 철갑상어 진액, 캐비아 여성청결제, 캐비아 화장품, 캐비아 숙취해소제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내수면 양식 및 유통가공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이수한 이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철갑상어 양식 및 캐비아 생산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병철/기자

임이자 의원,'올바른정치문화 대상'수상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 기후변화 대응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한민국 환경문화공헌대상'올바른정치문화 대상'을 수상했다.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23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환경문화공헌대상 및 환경인 컨퍼런스에서'올바른정치문화 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올바른정치문화 대상'은 92개 시민단체가 선정한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올바른 환경·정치문화 구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수여한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비용 추계 내용 전무지적 ▲국내외 탈석탄 요구에 맞춰 '탈석탄 로드맵' 필요성 제기 등 대한민국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준비성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내년 지역구 예산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스마트그린도시사업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임 의원은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과 국가기후환경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광주광역시 동구복싱단 창단 2년 만에 국가대표 선수 배출 '쾌거'

페더급 이행석 선수…복싱 명가 재건 새역사 쓴다

광주 동구는 동구복싱단 소속 이행석 선수(22, 56kg 페더급)가 지난 12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22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동구복싱단은 1996년 해체됐으나 민선7기 들어 직장 운동경기부 재건과 국내 권투 부흥을 위해 지난해 동구복싱부를 재창단했다.

평소 동구복싱단은 오전 6시 30분부터 용산체육공원에서 로드워크를 시작으로 오전엔 체력운동, 오후엔 실전 위주의 스파링을 하고 야간에는 웨이트와 개인 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동구복싱단은 창단 2년 만에 국가대표 선수 배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동구복싱단은 지난해 11월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했으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이번 국가대표 선발로 그간의 설움을 씻고 동구 복싱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게 됐다.

신명훈 감독은 "그간 피나는 연습과정에 지쳐 쓰러지던 선수들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면서 "그동안 물심양면 도와주신 임택 청장님과 동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년 2월에 있을 2차 국가대표선발전을 대비해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이때 이행석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을 전 동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광주복싱 일번지 동구에서 제2의, 제3의 이행석 선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행석 선수는 올해 4월 첫 출전한 제31회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 금메달, 6월에는 제15회 전국실업복싱선수권 대회 2위를 수상한 바 있다.

김덕윤/기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박성연, 김미영 의원 제4회 생활정책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박성연, 김미영 의원이 12월 21일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4회 생활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대상'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의제를 발굴 및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주민 중심의 생활정책 입법 활동을 펼친 주역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는 1차 시민정책평가단 100인의 투표와 2차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확정되며, 광진구의회 박성연 의원과, 김미영 의원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려 광진구 입법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박성연 의원은 3선이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기본 조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급격한 사회변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이 꿈을 꾸고 무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수를 대비해 선제적 행정지원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업종 증가와 비대면 산업 확대로 감정노동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감정노동 종사자가 정신적·신체적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김미영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오랜 기간 골목상권의 대표 주자로서 서민 먹거리와 살림살이 형성에 기반 역할을 해왔으나 법규상 상점가 인정이 어려워 각종 지원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던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지원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성연, 김미영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여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 주민과 만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강성원/기자

장수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장관 표창 수상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2021년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해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우수하게 추진한 기관을 전국에서 발굴, 포상하고 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현황,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를 파악한 후 한의약 기술을 사용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장수군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군에서는 그동안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및 홍보를 시행하고 한방가정 방문진료와 경로당 한방건강교실을 운영하며, 장수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세대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예방적 한방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고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등 한의약 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한의학적 건강증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지속적으로 건강취약계층 대상자를 찾아가 예방적 한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군민 건강증진 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곽승오/기자

2021 구미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함께하는 가치, 자원봉사로 안녕한 구미

구미시에서는 12월 23일 17:00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에서 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등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 구미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2021년 한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해 온 우수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격려하고, 지난 활동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로,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활동영상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상에 박실분님, 구미시장상에 이옥기, 최정순님 등 총 53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사전명단 등록자 및 백신접종완료자로만 참석자를 구성해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속되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먼저 알고 다가가, 남다른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코로나 대응 및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활동해 준 수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과 열정으로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구미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윤봉금/기자

강릉 칠사당,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강릉시는 2021년도 문화재청 보물 지정 확대계획에 따라 강원도문화재인“강릉 칠사당”건축물에 대해 지난 2월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문화재청으로부터“강릉 칠사당”이라는 명칭으로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강릉 칠사당 건축물에 대한 보물지정은 지난 2월 문화재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4월 강원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6월 지정요청 자료보고서 작성 및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검토회의 등을 거쳐 오는 27일자로 보물로 최종 지정되었다(문화재청 고시 제2021-173호)

아울러, 강릉 보현사에서 소장하고 있는“강릉 보현사 목조 문수보살좌상” 역시 그동안 강원도 문화재인“강릉보현사 목조보살좌상과 복장유물”로 관리되어 오던 것을 19년 5월 보물 지정신청을 시작으로 올해 7월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청 위원의 현지확인 및 세부조사를 거쳐 10월 문화재청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오는 27일자로 보물로 지정되었다.(문화재청 고시 제2021-165호)

강릉칠사당은 조선시대 지방수령의 집무처로 사용되어 온 건물로 건립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1632년(인조 10)에 중건하고 1726년(영조 2)에 확장, 중수하였으며 이후 1867년(고종 4)화재로 소실된 것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칠사당은 중수, 중건시대와 시대적 배경, 역사적 인물 및 사건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점, 관아건물로 대청마루 등 다양한 마루의 높낮이를 달리하여 공간의 변화와 위계를 구분하고 있는 평면형태와 구성, 바닷가에 위치한 특성을 반영한 물고기 모양의 화반과 삼익공의 공포 형식등이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보현사 문수보살좌상은 높이 73cm, 어깨너비 25cm 규모의 목조불상으로 제작시기는 미상이나 1599년 중수기와 조각양식을 통해 고려말~조선초에 조성된 작품으로 추정되며, 상원사 문수동자상과 함께 중수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특히 이 시기의 현존작이 많지 않아 불상연구에 크게 기여할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강릉 보현사 문수보살좌상과 평창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연혁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자료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인정되어 보살상 1구와 후령통 1점, 다라니 3점, 중수오보병 및 직물8점 등 복장유물이 함께 지정되게 되었다.

강릉시는 이번 보물로 지정된 칠사당에 대해 문화재청과 다양한 시설보수 및 원형복원 비용과 재난방지, 소방시설 보강 및 상시감시 인력 지원은 물론 학술적,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뛰어난 보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동산문화재인 보현사 문수보살좌상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적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등 문화재의 가치를 고찰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강릉 보현사 대웅전과 보현사 부도군에 대하여 2021년말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예정이며, 이로써 강릉시 보유 문화재는 총 133개에 이르며 강원도 전체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등원/기자

굿바이 GOODBYE 2021, 해피 HAPPY 2022 '연말연시는 대구미술관과 함께'

모던라이프전시전경

대구미술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문화적 활동이 쉽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입장료 30% 할인, 스케줄러 증정,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등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연말연시를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양말 트리, 비누 트리, 거꾸로 트리 등 차별화된 트리로 여러 해 많은 관심을 모았던 대구미술관은 올해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보였다. 올해는 임인년(壬寅年) 행복한 한 해를 고대하는 마음을 담아 강요배 작가의 작품 먼나무(2021) 열매를 모티브로 한 트리를 대구미술관 2층 로비에 설치했다.

이와 함께 입장권 할인 및 오프라인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제공한다. 12월 24일부터 1월 2일까지 실시하는 ▲연말연시 할인 이벤트는 모던 라이프 전시 입장료를 30% 할인하고(성인 7천원, 청소년 5천원) 12월 30일 실시하는 ▲스케줄러 증정 이벤트는 대구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스케줄러를 선물한다. 31일은 ▲탁상달력 증정 이벤트도 진행해 선착순 관람객 50명에게 이건희 컬렉션 탁상달력을 증정한다.

또한 SNS 댓글 이벤트(12월 27일 ~ 31일) '대구미술관 새로운 10년'에 참여한 100명의 관람객에게 '모던 라이프' 관람권을 증정해 연말연시 미술관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재 대구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는 '모던 라이프', '강요배' 등이 있다. 프랑스 최초 사립 미술 기관인 매그 재단과 대구미술관 소장품을 공동 연구한 '모던 라이프'는 세계적인 작가 78명의 대표작 144점을 통해 미적 근대성을 보여주고 두 문화의 만남, 서로 다른 회화의 전통을 가진 두 미술계의 만남을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만날 수 있는 '강요배, 카네이션-마음이 몸이 될 때'는 지난해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인 강요배 작가의 대규모 개인전으로 대자연의 풍경을 담은 대형 회화, 자연과 사운드에 집중한 영상작업, 대구, 경산의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한 설치작업, 그리고 고(故)이인성 화백의 대표작을 모티브로 한 회화 작업 등 작가의 폭넓은 작업 세계를 펼쳐 보이며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다. 전시는 내년 1월 9일까지다.

미술관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관람을 희망하는 방문객은 방역패스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입장 가능하다.

박종채/기자

경상남도, 제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밀양시' 최종 선정

경싱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추진하는 2021년 제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밀양시가 최종 선정되어 2022년부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스스로가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최종 지정된 도시는 도시별 특성에 따라 국비 최대 100억 원을 5년간 분할 지원하는 사업이다.

밀양시는 2019년에 제2차 예비문화도시를 신청해 한 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2020년에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문화도시 밀양'을 비전으로 제3차 예비문화도시를 신청해 최종 승인을 받고, 올해 초부터 예비사업을 내실 있고 착실히 추진하여 최종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밀양시는 옛 밀양대학교를 활용한 공간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때 원도심 활력의 주역이었지만 대학교 이전으로 쇠퇴하고 활력을 잃어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던 밀양대학교를 햇살문화 전환캠퍼스 핵심 앵커로 조성하고, 거점으로 공간화하여 도시 곳곳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 호평을 받았다.

밀양문화도시는 '햇살문화도시 밀양'이라는 사업명으로 따뜻한 문화, 비추는 문화, 퍼지는 문화, 반짝이는 문화의 4개의 핵심가치를 도출해 4개 분야 12개 세부사업과 문화도시 전략으로 햇살문화 전환캠퍼스 1개 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5년간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 도시문화의 지속 가능성 △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문화 △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문화도시 선정으로 밀양시는 도시 전환을 통한 대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달 초순 4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창원시는 내년 예비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말 최종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할 예정이다.

노영식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도시로 도민의 문화적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하며, 지역문화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광남/대기자

고양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통합 공모 지원사업 '2021 고양문화다리' 마무리

고양시 문화예술 생태계 순환을 위해 프로젝트 완료 적극 독려

고양문화재단이 2021년 고양특례시 지정을 맞아 새롭게 확대·개편한 고양시 문화예술진흥 통합 공모 지원사업 '2021 고양문화다리'의 성과공유회가 12월 22일 수요일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강화된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백신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확인자에 한하여 거리두기 좌석배치와 방역이 완료된 정식공연장에서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현장에는 고양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정재왈 대표이사가 개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지역예술인 100여명을 따뜻하게 맞았다. 더불어 내빈으로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정봉식 위원장을 비롯한 문복위 의원들이 참석하여 예술인들을 축하하였다.

'2021 고양문화다리'는 지난 봄,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일반예술 활동지원], [전통예술 활동지원], [신진예술가 지원], [예술기획 후속지원]의 총 5개 개별 공모 지원사업에서 최종 68건의 개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 중 단 2건만이 코로나19로 인한 진행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66건은 무사하게 마무리되어 전체 97%의 완료율을 달성하였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추이에 따라 예술사업진행에 매 순간 위기가 많았던 2021년을 감안하면 높은 완료율이며 전국 최고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성과공유회]에서는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현장과 정산-홍보-행정과정에서 평가점수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시상하는 코너가 마련되었다. 평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 장르의 외부전문가, 고양문화재단 사업부서장 등 간부진, 시민모니터링단, 정산평가 운영사무국 등을 통해 다각도로 진행되었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5건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고양문화재단은 이들 5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예술단체나 예술인에게는 '2022 고양문화다리'에 연속해서 선정될 경우 문화재단 운영시설 제공 협조 등의 사업진행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평가점수는 모든 개별 프로젝트 수행 예술단체나 예술인이 '2022 고양문화다리'에 지원·신청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가중치 점수로 적용되어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에서 우수 진행 프로젝트로 선정된 '강윤선 고양댄스컴퍼니'의 강윤선 대표는 "막상 훌륭한 예술작품을 창작하기에는 지원금의 액수가 항상 부족했는데 우수 프로젝트에는 문화재단 운영시설 이용을 제공해준다고 하니 매우 안심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반예술 활동지원]에서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지브로 스튜디오'의 재즈 피아니스트 이건민 대표는 "2021년은 '고양문화다리'사업이 다양한 예술장르를 지원하면서 저 같은 재즈 아티스트가 전통예술이 접목된 실험적인 예술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고 말했다.

[성과공유회] 현장을 찾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꿋꿋하게 극복하고 있는 고양시 예술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2022년에는 고양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다양한 예술정책을 마련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전성기를 견인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고양문화재단 정재왈 대표이사는 "고양시 예술인 여러분들과 고양문화재단이 합심하여 달성한 '프로젝트 완료율 97%'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실적이라고 보며, 2022년에도 고양문화재단이 고양시 예술인들에게 더욱 가까운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영기/기자

경기옛길 찾는 발길 폭발적 증가세… 올해 완주자 작년 대비 5.5배

올해 완주자 2,300명 넘어, 작년 대비 5.5배 증가,89.2km 경흥길, 개통 한 달 만에 완주자 120명 기록

경기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탐방로 '경기옛길' 완주자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느는 등 탐방객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옛길센터에 따르면 올해 경기옛길 완주자는 2,334명(21.12.20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완주자 422명 대비 5.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개통한 경흥길의 경우 89.2km의 장거리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121명의 완주자를 기록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옛길 완주자란 삼남길(99.6㎞), 의주길(56.4㎞), 영남길(116㎞), 평해길(125㎞), 경흥길(89.2㎞) 중 한 길을 택해 그 길의 모든 구간을 다 걷고 완주 인증서를 신청한 사람으로, 실제로 경기옛길을 찾은 탐방객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흥길 첫 완주자인 현직 의사 A씨는 "개통 당일 새벽 5시부터 이튿날인 21일 새벽 3시까지 꼬박 22시간을 걸어 89.2km를 완주했다"며 "탁 트인 야외에서의 걷기 운동은 코로나 시대에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선시대 역사지리서 도로고(道路考)의 육대로(六大路)를 토대로 조성하고 있는 경기옛길은 2022년에 6대로의 마지막인 강화길(김포·46km) 조성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도 관계자는 "내년 강화길 조성이 끝나면 도내 19개 시·군을 아우르는 532.2km의 대형 역사문화 탐방로가 완성된다"며 "많은 분들이 경기옛길의 아름다운 풍경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벗 삼아 걸으며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제주도, '탐라순력도' 속 문화재, 가상세계서 만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강만관)가 보물 '탐라순력도' 속 문화재를 주제로 '제주 역사문화재 랜선투어 가상현실(VR)'을 제작해 23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제주 역사문화재 랜선투어 VR에서는 탐라순력도에 등장하는 문화재 중 사적 제주목 관아, 국가민속문화재 제주 성읍마을 및 도 기념물 대정성지, 명월성지, 별방진, 수산진성 등 총 6개소를 탐방할 수 있다.

제주도 전체 지도인 「한라장촉」을 메인으로 6곳의 문화재를 클릭하면 해당 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함께 VR과 항공영상으로 문화재 곳곳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탐라순력도에 표현된 일부 장소는 실제 현장과 접목한 VR로 제작해 기존의 문화재 VR과 차별화를 꾀했다.

'제주목 관아'에서는 망경루 앞뜰에서 여인들이 귤을 종류별로 나누고, 이형상 목사가 연희각에 앉아 이를 일일이 점검하는 「감귤봉진(柑橘封進)」을, '명월성지'에서는 활쏘기 시험 장면인 「명월시사(明月試射)」를, '대정성지'에서는 대정현에서 시행된 「대정배전*(大靜拜箋)」을, '제주 성읍마을'에서는 군사훈련과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정의조점(旌義操點)」을, '수산진성'에서는 군사훈련을 점검하는 「수산성조(首山城操)」를, '별방진'에서는 군사훈련과 우마 등을 점검하는 「별방조점(別防操點)」을 문화재 실제 현장과 접목, 현재 모습을 배경으로 그림 속 인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VR로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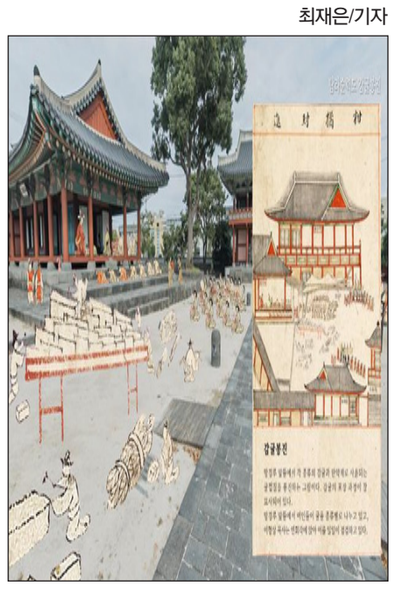
가상현실 투어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문화/역사-제주의 문화재-역사문화재 랜선투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문화재 6개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등 문화재 5개소를 VR로 새롭게 제작할 계획이다.

문화재 VR 제작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VR 관람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방문으로도 이어지도록 문화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현황을 수시로 제공할 방침이다.

강만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제주 역사문화재 랜선투어 VR가 탐라순력도 속 여러 장면을 통해 문화재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통영시, 2022년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최종 선정

통영시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방문지역에 일정기간(3일 이상) 체류(숙박)하면서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 더 나아가 그'지역다움'을 체험하고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하는 관광(여행) 형태를 주요 내용으로 핵심 관광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전문인력 양성, 홍보마케팅 및 관광상품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영시는 욕지도(우도, 연화도)에서 4박 5일간 생활하면서 낚시체험, 해녀체험, 고구마케기 체험 등을 진행하는 '슬기로운 섬마을 생활'을 공모 신청하였고 1차 서류심사 선정 후 지난 12월 9일 2차 현장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최종 선정되었다.

통영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통영섬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체류형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주도 관광 상품 개발로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강영훈/기자

경남도,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 현장적용 시험

경상남도는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의 2차년도 사업 성과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현장적용 시험(파일럿)을 시험장(테스트베드)인 센트랄 창원공장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은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중 하나로 2020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경남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1, 2, 3위인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와 함께 5년간 총 48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다.

경남테크노파크 부설 정보산업진흥본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경남대학교, 포메이션랩스 등 도내 대학과 정보통신산업(ict)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 제조업 부문 가치사슬 내 이종설비 간 상호 연동과 협업을 위한 개방형 제조운영체제 개발 ▲ 글로벌 iic 인증과 제조서비스 실증을 통해 확산을 추진하는 과제이다.

이번 시험(파일럿)에서는 김태희 도 산업혁신과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 및 사업수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권장하고 있는 국제표준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제조운영체제와 이를 활용하는 제조서비스가 실제 시험장(테스트베드)인 센트랄 창원공장 대상 제조라인에 적용되었다.

제조라인과 연결되어 구동되는 제조운영체제를 시작으로, ▲협업 생산 운영시스템(자동차부품산업의 각종 기준정보 설정, 작업관리, 검사관리, 생산실적 및 지표 관리 기능 등을 제공) ▲지능형 물류관제 서비스(자율주행로봇(amr)과 연계된 공장 물류 자동화) ▲kpi(핵심성과지표) 기반 3d 대시보드(정밀하게 모델링된 3d 그래픽 환경을 사용하여, 공정의 주요 지표와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가 시연되었다.

특히, 이날 적용된 국제표준기술 중 자산관리쉘(aas)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제안한 제조 자산 관리를 위한 핵심 표준으로, 공장 내 가치 있는 자산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으로 구현하기 위한 표준 도식(스키마)을 제시하고, 5g와 자율주행로봇(amr)의 연계는 공장 물류 자동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iic에서 강조하는 국제표준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이 기술을 통해 공통 표준이 확산될 경우 가치 사슬(value-chain) 내 기업 간 정보 교환 및 협업 등 제조업 생태계 전반에 정보 고도화 및 비용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책임자인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이창석 sw진흥센터장은 "오늘 현장적용 시험(파일럿)은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사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발된 솔루션을 실제 제품생산 라인에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본 시험(파일럿)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유사 공정에 적용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반과 융합하여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김태희 경남도 산업혁신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조운영체제를 향후 자동차부품산업 전 영역으로 확산·보급할 예정"이라며,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이 현재 대부분 기초단계에 머물러있는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된 고도화 단계로 단숨에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솔루션에 대한 iic의 테스트베드(testbed) 인증을 위해 iic와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iic 글로벌 인증 획득을 위한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윤광남/대기자

안성시, 대학과 지역 상생을 위한 꾸준한 발걸음 재촉

안성시는 지난 22일 LS미래원에서 '안성시-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안성시장을 비롯해 한경대, 동아방송예술대, 두원공대 총장과 중앙대 부총장, 한국폴리텍대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대학이 자체 추진한 지역 연계 사업 소개, 2021년 상생협력 과제 추진 실적, 2022년 신규 상생협력 과제를 발표하고, 상생협력의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교육청소년과 이원섭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안성시는 올해 관내 5개 대학과 지역주민 교육역량 향상 프로그램,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 취업·창업 입체적 지원, 안성천변 문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 24건을 추진한 결과 7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종 19건의 과제를 완료했고, 2022년에는 14건의 과제에 7억3천여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밝혀졌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경대 이원희 총장은 "시의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대학 상호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학장은 "반도체 특화 캠퍼스로서 관련 기업과 함께 반도체 포럼을 계획 중이며 안성시 관련 부서 공무원도 함께 초청해 학교와 기업, 지자체가 함께 상생 전략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방송예술대 최용혁 총장은 "관내 대학들과 시가 힘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시와 대학이 같이 발전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두원공대 조병섭 총장은 "안성시 인근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면 안성지역에도 관련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와 대응해서 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중앙대 최재원 부총장은 "우리가 상생협력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고민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안성의 상생협력 브랜드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되려면 대학이라는 인연을 통해 안성에서 머무는 청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중요하다"며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오늘 주신 좋은 의견을 모아 앞으로 상생협력 추진과제의 사업 진행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멋진 협력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부산의료관광산업, 러시아에서 높은 관심과 호응받아… 업무협약 9건 체결

2021 부산의료관광산업 설명회 및 해외특별관 열어

부산광역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 등에서 부산의료관광산업 설명회 및 해외특별관을 열어 총 9건의 기업 간 업무협약을 체결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부산의료관광 설명회'가 열렸고, 6일부터 9일까지는 모스크바에서 '2021 부산의료관광산업 해외특별관'이 개최됐다.

먼저, 3일에 열린 설명회에서는 부산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암센터 내에 원격진료센터를 개소하고 업무협약(MOU) 체결했으며, 의료기술 교류 콘퍼런스도 열었다.

또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해운대백병원, 삼육부산병원 등 부산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체(10곳)가 현지에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지 바이어 37곳과 50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2008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다방면의 국제교류를 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도 상트시 관계자 60여 명과 주 상트 대한민국 총영사까지 참석하여 양 도시의 의료기술을 적극 협력하는 등의 노력으로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6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21 부산의료관광산업 해외특별관(의료MICE)'은 '2021 러시아 헬스케어위크 국제의료박람회(Med Travel Expo)'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지역기업 10개사가 참여하여 현지 바이어 69곳과 97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내고, 부산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인프라 등이 소개되어 현지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그간 부산은 기존 주력 타깃 시장인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홍보를 해왔으나, 이번에 러시아 북서부 지역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서 글로벌 부산 의료관광 을 마케팅하여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등 부산 방문 외국인 환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1 만화원작활성화공모전' 개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다양한 장르로 확장 가능한 만화 원작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21 만화원작활성화공모전'을 개최한다.

'2021 만화원작활성화공모전'은 만 14세 이상의 만화 창작자 중 연재 혹은 출판 경력이 없는 예비 작가, 80회차 이하 연재 또는 단행본 3권 이하의 출판 경험이 있는 신인작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접수 기간은 2021년 1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 1월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출 서류는 지원서와 기획서, 2화 분량의 원고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과 작품 접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 만화원작활성화공모전' 수상작은 총 3,2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작품 기획 · 개발 지원 및 교육이 제공된다. 본 공모전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대상(1작품) 1,000만원, 최우수상(1작품) 700만원, 우수상(2작품) 각 500만원, 장려상(2작품) 각 2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본 공모전은 다양한 장르로 확장될 수 있는 만화 작품을 발굴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최종 수상자 뿐만 아니라 본선 진출 대상자에게도 기획개발 검토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1 만화원작활성화공모전'은 웹툰 원작으로서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되어 인기몰이 중인 '지옥', 'D.P 개의날'과 같은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웹툰, 드라마, 영화 제작 PD들이 함께 참여한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산업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한국웹툰산업협회와 협력으로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웹툰 분야에서는 ㈜다온크리에이티브, ㈜아이나무, ㈜토리컴즈가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 분야로는 인벤트스톤, 아우라픽처스, JTBC 스튜디오와 팬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하여 작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교육사업팀 최하전 팀장은 "예년과 다르게 올해 만화원작활성화공모전은 현직에서 치열하게 웹툰 개발 및 제작을 하고 있는 웹툰, 영화, 드라마 제작사의 프로듀서 7명이 각자 다양한 시각으로 심사부터 공모전 참여 작품 발굴까지 함께한다. 공모전에 출품한 작가는 한 번의 출품으로 7명의 프로듀서에게 본인 작품을 투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며 웹툰 예비 작가 및 신인 작가의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윤용민/기자

광양시, 올해 2조 2,024억 원 투자유치 '쾌거'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광양시가 올해 포스코 리튬솔루션(주)과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롯데케미칼(주) 등 21개 기업 2조 2,024억 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1,585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며 '기업하기 좋은 광양'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기반을 마련한 데는 광양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이다.

시는 지난 16일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 한마당 행사에서 '2021년 전라남도 투자유치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포스코케미칼 투자 동향을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맞춤형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자 포스코케미칼 투자유치 T/F팀을 구성했으며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업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노력 결과 2018년 광양 율촌산업단지에 포스코케미칼 투자유치를 이뤄냈으며, 같은 해 양극재 1단계 공장이 착공한 이후 올해 4단계 공장이 증설됨에 따라 연간 10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추게 됐다.

양극재 연간 10만 톤은 전기차 배터리 110만여 대에 쓰일 수 있는 양이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포스코 리튬솔루션(주)이 7,6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전기차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한 4만 3천 톤의 수산화리튬 제조공장을 착공했으며, 9월에는 포스코HY클린메탈(주)이 1,2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유가금속추출 1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광양 율촌산업단지에 양극재 제조, 수산화리튬 제조,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이 차례로 지어지면서 광양시는 원료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을 갖춘 이차전지 생산 중심지로 부상했다.

지난 11월 광양시는 한국오라클(유), 마스턴투자운용(주)과 협력사인 KT·포스코건설·포스코 ICT·LS ELECTRIC 사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7,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빅데이터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그동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돼 있었으나, 정부의 전력 분산 정책에 따라 점차 지방으로 이전되는 추세이다.

시는 황금산업단지의 지리적 이점과 원활한 전력 공급, 통신망 등 뛰어난 입지여건을 앞세워 데이터센터 유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위해 여러 차례 관계기관을 방문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을 구상해 왔다. 협약에 따라 한국오라클(유)과 마스턴투자운용(주)은 황금산단 105,563㎡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용하고 향후 입주수요 확보 노력과 함께 약 2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광양시에는 익신·신금·초남·명당·세풍·황금·율촌·동서측 배후단지 등 각각 특장점을 지닌 8개의 산업단지가 분포돼 있으며,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총 물동량 2위 광양항을 중심으로 많은 연관기업이 입주해 있다.

시는 미분양 산단 활성화와 투자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와 함께 다양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인 인력풀을 활용해 잠재 투자기업의 투자 동향과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오는 2022년부터는 광양시 조례 개정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지원, 익신산단 환지 보조금 지원 등 확대된 보조금 지원시책을 펼쳐 투자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해 광양시 투자유치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기업을 유치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에도 지역 전략산업과 미래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유치해 광양시가 활력이 넘치는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기석/기자

영화 '특송', '특송 노브레이크 필터' 화제!

심장 박동수를 높이는 짜릿한 쾌속 질주와 액션이 가득한 범죄 오락 액션 영화 '특송'이 AR필터 '특송 노브레이크 필터'로 MZ세대를 사로잡으며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2022년 새해 극장가의 포문을 열 범죄 오락 액션 영화 '특송'이 출시한 AR필터 '특송 노브레이크 필터'가 SNS을 뜨겁게 달구며 인기를 끌고 있다. '특송'은 성공률 100%의 특송 전문 드라이버 '은하'가 예기치 못한 배송사고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추격전을 그린 범죄 오락 액션 영화다.

이번에 출시한 AR필터 '특송 노브레이크 필터'는 박진감 넘치는 카체이싱을 펼치는 특송 전문 드라이버 '은하'(박소담)가 되는 짜릿한 경험을 선사해 많은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거침없이 핸들을 돌리며 걸크러쉬 매력을 십분 발휘하는 '은하'의 모습에 자신의 얼굴을 입힐 수 있어 재미를 유발한다.

신선하고 색다른 재미를 추구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인증샷 행렬은 물론 MZ세대들의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해 "생생하고 박진감 넘치는 후진 제대로네요!"(인스타그램_hyun*******), "운전스킬 만렙 특송 전담 드라이버가 된 이 기분ㅋㅋ"(dae********), "내가 바로 방구석 드라이버^^* 야 타!"(인스타그램_eun******), "면허도 없는데 방구석 드라이버 되기 잼ㅋㅋㅋ 영화 보고싶다 재밌겠네"(인스타그램_ooj***), "특송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특송 필터 웃기네ㅋㅋ"(인스타그램_sound****)와 같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특송 노브레이크 필터'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예매권을 증정하는 이벤트까지 진행해 더욱 인기몰이 중이다.

'특송'은 돈만 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배송하는 '특송'이라는 신선한 소재에 짜릿한 카체이싱 액션을 더해 2022년 새해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화 '기생충'으로 글로벌 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박소담이 성공률 100%의 특송 전문 드라이버 '은하'로 분해 몸을 날리는 파워풀한 액션을 선보인다.

여기에 역대급 빌런으로 돌아온 송새벽과 극의 완성도를 높이는 김의성을 비롯해 정현준, 연우진, 염혜란, 한현민이 완성한 예측불허 추격전이 담긴 '특송'은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솟구치는 아드레날린을 선사할 전망이다.

직접 참여하는 재미가 가득한 AR필터로 관람 욕구를 높이는 범죄 오락 액션 영화 '특송'은 2022년 1월 12일 개봉한다.

최재은/기자

금토드라마 '옷소매', 끝 모를 상승세 속 이준호-이세영 멜로 2막!

금토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이준호-이세영의 로맨스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간다.

MBC '옷소매 붉은 끝동'(이하 '옷소매')의 끝 모를 상승세가 세간을 놀라게 만들고 있다. 첫 방송 이래,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해온 '옷소매'는 지난 12회 기준을 전국 시청률 13.3%, 수도권 시청률 13.6%, 최고 시청률 16.6%를 돌파하는 놀라운 저력을 보였다.(닐슨 코리아 제공)

뿐만 아니라 신작 러시가 이어진 12월 3주차에도 '옷소매'가 모든 화제성 지표(굿데이터코퍼레이션 기준)를 올킬했을 뿐만 아니라, '웨이브(wavve)'와 SMR 클립 조회수 역시 드라마 부문 4주 연속 1위를 석권하며 '킹소매'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옷소매' 열풍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두 주인공 이산(이준호 분)과 성덕임(이세영 분)의 미래를 향한 시청자들의 관심 역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12회를 기점으로 산이 왕위에 오르며 새 시대가 열린 동시에, 산과 덕임의 관계가 변곡점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멜로 2막이 열렸기 때문.

그동안 '옷소매'는 산과 덕임의 감정선을 켜켜이 쌓아오며 '과몰입 로맨스'로서 명성을 자랑해왔다. 산은 성군이 되고자 하는 꿈 하나만을 바라보며 궁녀 신분인 덕임에게 향하는 뜨거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아릿하게 만들었고, 덕임은 그런 산을 연모하지만 '후궁의 삶'이라는 예견된 불행 속으로 자신을 던지고 싶지 않은 심경을 내비치며 깊은 공감을 얻어왔다.

2막에서는 왕이 된 산이 덕임을 지밀나인으로 곁에 두면서 그를 향한 애끓는 열망이 임계점에 다다른다. 그러나 가까워진 물리적 거리만큼 덕임의 가슴앓이는 깊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펼쳐질 격정적인 멜로가 후반부 전개에 폭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역사가 스포일러'라는 점이 역으로 흥미를 높이는 대목이다. 덕임이 산의 승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떻게 그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극중 '산덕커플'은 사소한 스킨십 하나하나가 뜨거운 화제를 모을 정도로 아찔하고 가슴 설레는 케미로 안방극장을 열광케 하고 있다. 이에 벌써부터 역대급 로맨스 명장면 탄생을 예견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산과 덕임의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옷소매'가 원작의 장점과 드라마의 오리지널 서사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며 원작 팬은 물론 일반 시청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전개를 펼쳐 온 바. '옷소매'가 가슴 시린 새드엔딩으로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 원작의 여운을 따를지, 드라마만의 엔딩으로 원작과 다른 여운을 남길지 이목이 쏠린다.

MBC 금토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지키고자 한 궁녀와 사랑보다 나라가 우선이었던 제왕의 애절한 궁중 로맨스 기록. 오는 24일 밤 9시 50분에 13회가 방송되며, 25일에 14,15회가 연속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장윤주, 멜론 스테이션 '인디스웨이' 크리스마스 특집 출연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든 장윤주의 출연 조건은?

모델 겸 연기자 장윤주가 멜론 스테이션 '인디스웨이' 크리스마스 특집에 출연한다.

장윤주는 뮤지션 강아솔, 음악평론가 정민재가 진행을 맡아 인디/언더그라운드 신의 신인부터 레전드 아티스트까지 다양한 뮤지션과 만나보는 멜론 스테이션 프로그램 '인디스웨이'에 출연해 속 깊은 대화를 나눈다.

장윤주의 '인디스웨이' 출연은 그와 친분이 있던 강아솔이 무려 10년 만에 보낸 DM을 통해 성사됐다. 강아솔의 DM을 받은 장윤주가 흔쾌히 나오겠다는 대답과 함께 깜짝 놀랄 출연 조건을 내걸었다. 덕분에 '인디스웨이' 사상 최초로 감미로운 강아솔의 목소리를 라이브로 듣게 될 전망이다.

모델, 연기자, 그리고 가수로도 왕성히 활동해 온 장윤주는 지난 2008년 첫 번째 앨범을 발매하고 홍대에 위치한 공연장에서 공연을 열었던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진짜 힘들었다. 심지어 아버지도 공연을 보러 와서 주무셨다"고 회상하며 곡 작업을 꾸준히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공개한다.

또한 장윤주가 결혼, 출산 후 본격적으로 연기에 뛰어들게 된 이유도 밝혀진다. 이후 드라마, 영화를 연이어 작업했다는 장윤주는 "내년에는 스타가 되고 싶다"라는 이미 톱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소 엉뚱한 새해 목표를 덧붙여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종이의 집' 한국판 촬영을 마친 그는 함께 출연한 배우 유지태와 있었던 에피소드도 꺼내 놓는다. 유지태가 촬영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윤주의 생존력!'을 외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이 외에도 20대 후반부터 앓아온 갑상선저하증으로 인해 아침에 약을 챙겨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싸이월드 전성기 시절 배경음악을 2,000곡까지 보유했던 것 등 어디서도 공개한 적 없는 장윤주의 TMI들이 '인디스웨이'에 담길 예정이다.

장윤주가 출연한 멜론 스테이션 '인디스웨이'는 23일 오전 10시 멜론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29일 첫 방송된 '인디스웨이'는 강아솔, 정민재의 편안한 진행과 뮤지션과의 폭넓은 공감대로 게스트들로부터 진솔한 이야기를 끌어내며 인디음악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자 멜론 스테이션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멜론 스테이션에서는 '인디스웨이' 외에도 빅히트뮤직 전용 프로그램 'BIGHIT MUSIC RECORD', SM 전용 프로그램 'SMing', 래퍼 이영지가 대표 국힙 뮤지션들과 함께 하는 '힙플라디오', 아이돌부터 실력파 싱어송라이터까지 다양한 뮤지션이 직접 DJ가 되어 진행하는 멜론스테이션의 대표 프로그램 '오늘음악', 뮤지션 나얼과 에코브릿지가 함께 진행하는 '디깅 온 에어', DJ 뽀로로가 인기 동요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뽀로로의 '뽈륨을 높여요', 가장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바리톤 정경의 브라보 클래식', DJ 뽀디 박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나누는 영화 이야기 '영화& 박선영입니다', 정기고의 'SOULBY SEL', '이달의 루키'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김효진/기자

배우 '배두나', 독립출판의 새로운 시도!

이례적으로 패션플랫폼 W컨셉에서 최초 판매

글로벌 배우 '배우 배두나'는 라이프 아이콘, 선망의 패션까지 23년간 자리를 지켜온 배두나에 대한 연기 해부, 스타로서의 영향력 분석, 동료의 증언, 전대미문의 뇌실험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다.

'배우 배두나'가 출판계에 싱그러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독자들과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 눈길을 끈다.

'배우 배두나'는 '배우 이병헌'에 이어 두번째로 탄생한 액톨로지 시리즈로서 독립출판만이 할 수 있는 실험적인 시도들로 독자들과 만남을 꾸리고 있다.

먼저 '배우 배두나'는 패션 플랫폼 서비스 기반의 W컨셉에서 선판매되며 도서 판매의 경계를 허물었다.

배두나가 메인 모델로 활동하는 W컨셉과의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추진한 백은하 배우 연구소 소장은 "도서는 서점, 도서관에서만 즐겨야한다는 선입견을 깨고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고 싶었다.

그 첫번째 시도로 W컨셉에 제안했고 아주 흔쾌히 판매 이벤트를 준비해주어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다. 독자들의 구매 성향이 경계와 선입견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이태원 MMMG에는 '배우 배두나' 팝업 스토어가 오픈돼 독자들과 만났다.

그리고 한남동 힙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라이프 스타일 스토어 MMMG에 입점한 '배우 배두나' 팝업 스토어를 만나기 위해 많은 예비 독자들이 방문해 도서에 대한 관심을 입증했다.

무엇보다 '배우 배두나'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유 나가바의 작품, 국내 최고의 포토그래퍼들과 스틸 작가의 비하인드 포토 등 다양한 이미지들이 수록돼 있어 MMMG와의 협업은 도서의 구성과 잘 들어맞았다. 팝업 스토어 오픈 기간 중 방문한 독자들에게는 하이네켄 0.0을 제공해 호응을 이끌었다.

현장에는 배우 배두나도 방문해 도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한 책의 저자 백은하 배우연구소장은 "도서가 단순이 독서라는 행위를 떠나 더 넓은 취향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기획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접점을 통해 독자들과 새로운 만남을 추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대형 자본에 기대지 않고 독립 출판으로 제작된 '배우 배두나'의 싱그러운 행보는 배우의 지금까지 행보들과 어우러져 독자들에게도 더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곧 2쇄 작업에 돌입한다.

'배우 배두나'는 백은하 배우연구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김효진/기자

영화 '해적:도깨비 깃발', 새해엔 빵빵 터지는 웃음이 제격

신선한 소재, 스펙터클한 볼거리, 충무로 대세 배우들의 만남으로 기대를 높이는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이 '공조', '극한직업'에 이어 유쾌한 웃음과 재미로 전 세대 관객을 사로잡은 신년 영화 흥행 계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 오락 블록버스터의 한 획을 그었던 '해적'의 귀환 '해적: 도깨비 깃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바다로 모인 해적들의 스펙터클한 모험을 그린 영화다.

자칭 고려 제일검이자 의적단 두목인 '무치'(강하늘)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바다를 평정한 해적선의 주인 '해랑'(한효주)의 배에 올라타며 시작하는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왕실의 마지막 보물이라는 신선한 발상의 스토리와 해적부터 의적, 그리고 역적까지 사라진 보물을 차지하려는 개성 강한 캐릭터들의 다채로운 케미스트리로 기대를 높인다.

특히 서로가 탐탁지 않아 사사건건 티격태격하면서도 보물을 찾기 위해 손발을 맞춰 나가는 해적과 의적의 모습은 빵빵 터지는 상극의 조합으로 유쾌한 웃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와 같은 캐릭터 군단은 강하늘과 한효주를 비롯, 이광수, 권상우, 채수빈, 오세훈, 그리고 김성오, 박지환까지 연기력과 매력을 두루 갖춘 대세 배우들이 완성해 더욱 눈길을 끈다.

여기에 불기둥, 번개섬 등 드넓은 바다를 무대로 펼쳐지는 스펙터클한 볼거리는 기존 국내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스케일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짜릿한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렇듯 믿고 보는 배우들의 경쾌한 연기 시너지는 물론 완벽히 새로운 이야기, 역동적인 볼거리로 무장한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통쾌한 웃음과 재미로 2022년 새해 극장가를 뒤흔들 것이다.

2017년 사상 최초로 결성된 남북 형사의 예측불가한 공조 수사기를 그린 영화 '공조'는 남북 최초의 비공식 합동 수사라는 신선한 설정으로부터 출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정반대인 두 형사의 찰떡같은 콤비 플레이와 다채로운 액션씬으로 781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어 해체 위기의 마약반 형사들이 잠복 수사를 위해 연 치킨집이 뜻밖의 대박을 터뜨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극한직업'은 치킨집을 통한 위장 수사라는 참신한 소재 속 허당기 가득한 개성만점 캐릭터와 말맛 있는 대사로 수많은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1,626만 관객을 동원, 새해엔 유쾌한 웃음이라는 스크린 흥행 공식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렇듯 새해를 여는 통쾌한 재미로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영화 '공조', '극한직업'에 이어 '해적: 도깨비 깃발'이 신년 영화 흥행 계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세 배우들의 만남, 차별화된 스토리와 스펙터클한 액션 볼거리로 역대급 재미를 선사할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오는 2022년 새해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최재은/기자

'신과 함께 시즌2' 빛나는 솔로 지상렬X남창희 출격!

채널S '신과 함께 시즌2'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연예계 대표 솔로 군단 지상렬과 남창희가 출격한다. 외로운 산타로 변신한 이들은 웃음 보따리 선물을 안길 것을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오는 24일 방송되는 채널S의 예능 프로그램 '신과 함께 시즌2'(채널S & SM C&C STUDIO 공동제작/ 프로듀서 김수현, 연출 진선미)에는 웃음 보증 수표 지상렬과 남창희가 4MC를 향한 저격은 물론 보는 이들의 웃음을 저격하는 모습이 담긴 21회 예고 영상이 '채널S'의 네이버TV와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과 함께 시즌2'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케미를 보여줄 4MC 신동엽, 성시경, 이용진, 박선영이 '푸드 마스터'로 변신해 당신의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메뉴를 추천하고 함께 이야기와 맛을 나누는 맞춤형 푸드 추천 토크쇼다.

예고 영상에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빛이 나는 솔로' 지상렬과 남창희가 등장했다. 지상렬은 '신과 함께'의 홍일점 박선영을 향해 "내 여자가 될 수 없어!", "싫어요"라며 싱글남의 거침없는 패기를 보여 웃음을 유발했다.

이어 "누구한테 연락이 가장 많이 오는지"라는 질문에 남창희는 "같이 주식 하는 친구들"이라고 답하며 짠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상렬과 남창희는 이날 재미없으면 가차없이 귀가까지 하겠다고 선전포고해 더욱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크리스마스이브를 웃음으로 가득 채워 줄 솔로 군단 지상렬과 남창희의 웃음 스나이퍼 대활약은 오는 24일 저녁 8시 채널S '신과 함께 시즌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